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94–895 1982년 8월 6일(금) & 7일(토)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 Friday & Saturday, August 6 & 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AUG 9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아라파트 PLO지도자

"최후까지 사수하라"

이스라엘, "철수않는한 공격 계속"

서베이루트 전투, 유엔 이스라엘 비난

이스라엘제트기와 포함 및 포부대가 서베이루트를 벌집쑤시듯이 공격,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계속좁혀가자 PLO 지도자 야세르·아라파트는 "장렬한 죽음만이 승리에의 길"이라고 동료들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하룻동안의 전투에서 적어도 54명이 숨지고, 15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통신 WAFA는 이스라엘측 탱크21대, 장갑차 14대가 파괴되고, 100여명이 사상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PLO간의 협상을 중재하던 미국은 "즉각 전투를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경고에도 불구, 이스라엘이 4일부터 탱크를 동원한 지상총공격을 감행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모종의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3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PLO의 서베이루트 즉각 철수와 이스라엘의 휴전엄수를 촉구했었다.

이스라엘군대는 이틀째 공격에서 서베이루트의 전략요새들을 계속 접수하고 있으며, PLO게릴라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4일밤 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전했다.

4일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사태 해결 실패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미국의 기권을 제외한 전 24개안보회이사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요르단과 스페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양측은 즉각 휴전, 레바논내의 모든 전투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난4일 안보회 결의가 있기전의 상태로 신속히 복귀할 것과 이스라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안보회는 모종의 제재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은 또 자비에·페레즈·드·쿠엘라사무총장이 즉각 이스라엘과 레바논으로 가서 평화해결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모나캠·베긴의 "이스라엘 대표만이 아니라 아라파트 PLO대표와도 만난다면 이를 환영치 않겠다"고 반응, 별진전을 못보였다.

베긴이스라엘수상은 4일 "이스라엘의공격은「팔」측의 휴전위반에 잇달은 것으로「팔」게릴라들의 철수로 레바논사태는 해결될것이나, 그렇지 못할경우 이스라엘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라파트 PLO지도자는 4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미국제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에 대항,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죽음뿐이다. 희생적 죽음만이 승리에의 길이다"고 전 PLO에 호소했다.

맥기건 외무상 이스라엘 강력비난

(오타와)캐나다외무성은 4일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표명했다.

막·맥기건연방외상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계속 공격하는 행위는 평화를 모색하는 국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2일 이스라엘의 공격행위가 멈추어지지 않는한 모종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는 외무성은 이스라엘이 이틀째 무차별공격을 감행하자 다시 한번 강력한 비난을 표명한 것이다.

맥기건외상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해온 레바논주재 대사 데오도르·아르칸트씨가 철수 명령을 받은 이틀뒤인 4일 현재 베이루트인근 도시의 한 호텔에 묵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칸트대사는 시리아와 요르단을 거쳐 내주에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미문화원 방화사건

김현장 사형 구형

최기식신부는 5년

(부산)2일 부산지법서 열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현장(32), 문부식(23)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종신형을, 그리고 최기식신부(39)등 9명에게는 10~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일.

검찰측은 "피고측들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현정부를 전복,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키 위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좌경극렬분자들"이라고 말하고 "문화원 방화사건은 반정부활동이 아니라 좌익의 조직적 폭력행위"라며 극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 피고인들을 묵묵히 앉아 있었으나, 사형및 종신형이 구형된 김현장피고인들의 가족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현장피고인은 문부식 피고인을 사주, 문화원에 방화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문은 미정부의 전정권지지에 항의하기 위해 방화했다고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김은 배후조종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최신부가 성직자의 의무를 벗어나 김과 문 두피고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데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을 받은 16명의 피고인중 많은 피고인들이 경찰고문에 못이겨 공산주의이념을 지지한다고 고백했다고 진술했다.

(상보11면에)

◆아르칸드 캐나다 대사가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 베이루트부근 주니에의 한 호텔에 도착, 미리 피신해온 한국의 장하연 대사(오른쪽)와 반가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대중씨 지지자 고문 끝에 사망

(LA지사)캐나다등 미주에서 발행된 신문을 국내에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한 인권운동가 기정도(46)씨가 경찰고문에 의해 사망했다고 1일 LA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샘·제임슨동경특파원의 서울발 기사에서 LA타임스는 김대중씨 지지자인 기씨의 사망은 전두환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고문에서 발생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LA타임스는 기씨의 케이스가 종전처럼 묵살되지 않고 한국경찰이 LA타임스의 질문서에 답변했다는 점이 특이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기씨는 임종직전 아들에게 보내는 유언장에서 자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 경찰고문에 의해 죽게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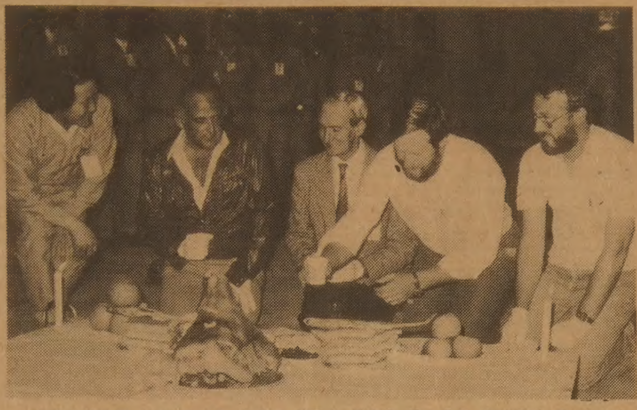
캐나다가정이 보고 느낀 조용한 아침의나라 한국

지난 2년간 경북 월성의 캔두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총감독으로 근무해온 엔지니어 모리아티씨가 본지에 한국생활의 인상기를 투고해왔다.

"캐나다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란 나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필자 모리아티씨는 패베 원주민의 후예로 맥길대학 공대를 졸업한뒤 온타리오·하이드로, 패베 하이드로를 거쳐 지난 8년간 캔두발전소 건립을 맡고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에 근무해왔다.

월성발전소 건립에만도 5년간 몸담아온 그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었다.

영어로 된 그의 한국인상기를 전문 번역 게재한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한국의 풍습은 두고두고 추억담이 될 것이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굳은얼굴·근면함엿보여…"

우리가 한국을 처음 접하기는 1980년5월 어느날 아침 부산으로 가는 여객기가 동해위를 날아가고 있을때였다. 멀리 밑으로 뵈는 낯설은 땅덩어리가 점점 가까와 오자 몬트리얼에서 부터 장장20시간 이상의 비행기여행에 곤죽이 되도록 지쳐, 의자에 푹파묻혀 잠을 자거나 아무소리도 없이 창만 내다보던 우리 가족들은 흥분에 들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부산공항에서 우리가 처음 대한 한국인은 세관원이었다. 승객들의 짐을 조사하는 그들의 표정은 매우 굳어보였으나 근면한 인상을 풍겼다. 우리가족(나와 아내, 아들 그리고 그당시 1살된 딸)차례가 되었을때 그들은 외국인임을 알자 그들의 근엄한 표정은 순식간에 풀렸고, 짐조사도 간단히 하는 등 친절하게 우리의 도착을 맞이했다.

이 작은사건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가졌던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을 걷어갔으며, 이같은 친절은 지금까지도 계속 받아오고 있다.

우리는 회사의 미니버스로 부산을 떠난지 5시간만에 월성에 도착했다. 차가 달리는동안 우리 모두는 새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느라 쉴 사이도 없이 머리를 돌려야 했다. 부산 주위의 들쑥날쑥 나온 산들, 다양한 색깔의 지붕들과 높은 담장, 질서정연히 늘어선 논밭, 깨끗이 단장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그위를 달리는 많은 고속버스와 트럭들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우리가 첫번째로 머문곳은 경주였다. 경주는 국제적호텔들과 인공호수 및 수천그루 나무와 작은관목들을 옮겨심어 국제적 관광센터로 손색이 없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우리는 콜라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나나밀크로 저녁을 대신했다.

경주에서 1시간가량 산속을 달려 동해안으로 향했다. 산사태방지를 위해 산등성이 밑에 쌓아올린 축대와 함께 경치는 일변했다. 우리는 묘하게 쌓아올린 이 돌축대의 대칭적 아름다움과 그 거대함,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며 그림과 같이 전개되는 작은 논들,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말쑥한 교복차림의 학생들, 그리고 고유복장을 한 노인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우리는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새집에 안착했다.

우리의 경험은 경북월성군 양남면 나리에 600메가와트 캔두핵발전소를 세우고 가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다른 100가구의 케네디언가족들이 겪은것과 별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캐나다원자력공사(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는 한국경제의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석유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서 3번째로 월성에 핵발전소를 설계, 건립하기로 한국전력주식회사와 1974년 계약을 맺었다. 한국의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이 AECL의 기술지도 아래 78년1월 시공, 82년말까지 완공 가동할수 있게 계획된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나라에서 설립된 핵발전소와 비교해볼때 한국인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최단기 완공 기록이다.

〈3면에 계속〉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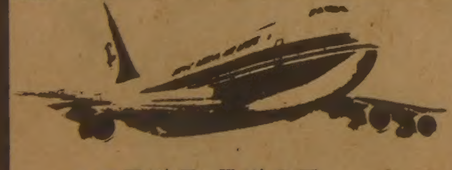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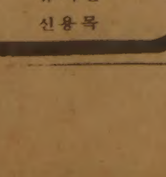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귀국선물
한국화장품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현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3133
RES. 622－1171 정 창 헌

YOUR KEY TO THE FUTURE
† 당신을 위한 성공의 열쇠 †
ENCYCLOPAEDIA BRITANICA

NEW ENCYCLOPAEDIA BRITANICA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30권
▲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 (214년의 역사와 전통과 명성) ▲ 전세계 116개국에서 동시 판매중, ▲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사용) ▲ 보다 나은 인격의 권위를 위해「가정도서실」을 갖고자 원하시는 분.
2333 DUNDAS ST. W. SUITE 506
TORONTO, ONT. M6R 3A6 송 영
☎ (416)461-3363, 463-7423(B)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학생극 「카인의 후손」

대학생문학써클 "구름다리" 공연

◆원작및 연출자 엄혁씨.

교포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학동인회 「구름다리」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연극 공연을 한다.

8월13일부터 3일간 토론토에서 한국어및 영어로 공연할 이들의 연극은 문협회원 엄혁(욕대학 미대 회화과1년)작, 「카인의 후손」(1막5장)을 이영희양(욕대학 영문과3년)이 영역하여 두나라 말로 연극을 한다.

한글극 연출 엄혁, 영어극 연출 이영희(이상문총영사 장녀), 기획 박성민(토론토대학 동양학과4년), 무대감독 조영군, 조명 이명세(토론토대학 공대4년), 음향 유호석(맥마스터대학 공대4년)의 스탭진과 캐스트(배역)로 테리(남주인공)역에 한글-이광복(토론토대학 공대졸)·영어-민태규(토론토대학 공대1년), 요화(여주인공)역에 한글-이성화(토론토대학화공과졸)·영어-이영희, 진 역에 한글-박지연(죠지브라운대학 의상과3년)·영어-이성희(욕대학 사회학과졸), 할머니역에 한글-이웅건(토론토대학 1년)·영어-임항빈(토론토대학 1년)으로 구성된 학생연극 「카인의 후손」은 지난4월말부터 하루4시간씩 매일같이 연습을 거듭, 현재 총연습 단계에 접어들었다.

같은 연극을 한글및 영어로 동시 공연하기는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하오6시에는 영어극, 하오8시30분부터는 한글극을 공연하며, 무대는 U.C.Play House(79A St.George×Harbora, Tor)이다.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반통일교 합동 캠페인

3개종파 대표 행동통일 합의

(뉴욕지사)신구교를 망라한 뉴욕시의 주요 각종파 대표들은 문선명목사의 통일교를 지칭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모든 파괴적인 사교(Destructive Cults)의 세력확장 저지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지의 1일자보도에 따르면 유태교, 가톨릭, 신교의 3파 대표들은 지난6월부터 수차례 만나 뉴욕지역을 중심으로 미전역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통일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는것.

약30만에서 5백만에 달하는 신자들을 가질만큼 확산되어온 통일교에 대해 각종파 대표들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7월1일 2천75쌍의 신도들이 메디슨스케어가든에서 합동결혼식을 가진 직후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공동성명에 서명한 종파들은 32개 주요 유태교파들의 협의체인 「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로마가톨릭 뉴욕대교구」, 「로마가톨릭 브루클린교구」, 그리고 모든 신교및 그리이스정교를 포함한 뉴욕시교회협의회(N.Y. Council of Churches)등이다.

이 성명은 "종교계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매우 엄숙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혼의 품위와 성스러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행동통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첫 반통일교 성명을 낸 이들 각종파의 행동에 대해 이 유태교 지도자(전교육위원회 위원장 세이머·라크만박사)는 이번 범종파적 행동이 너무도 새로운것이어서 다음 조처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것으로 인용되었다.

이번 각종파들의 공동성명은 통일교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24시간운영의 핫라인이 있음도 언급했다.

한편 통일교의 조이·어바인대변인은 범종파적인 반통일교 운동에 대해 "그것은 통일교및 문목사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려는 짓"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 가치판단을 부여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5계절>

천 작

이 유 소(토론토대학 대학원생)

◆이유소

"천작"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 사투리이다. 순수한 서울말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진 오늘 듣기 힘들어진 말이기도 하다.

천작은 이를테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노릇이다. 남이 시켜서라면 천금을 주어도 안할 노릇, 하는 사람스스로는 더없는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노릇이 천작이기도 하다.

놀기에 정신이 팔려 저물녘에야 집에 돌아온 자식을 부모님들은 "무슨 천작에 끼니도 못 찾아먹고, 놀러 다니느냐?"고 꾸짖는다.

「파수대」를 손에 펴든채 길목에 우두커니 서서 하루종일을 보내는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 눈에는 천작으로 밖엔 비치지 않는다.

나이 서른을 바라보면서 무슨 박사학위를 할네 하고 매일매일 책하고 씨름이나 하는 나도 필경 천작이 나서 이러는 것일게다.

천작의 어원은 천주학이다. "천주학"이 줄어 "천작"이 되었다가, "천작"이 된 것이다.

천주학은 곧 가톨릭교이다. 가톨릭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는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고 불리웠다. 가톨릭을 맨먼저 받아들인 것이 당시의 지식층인 양반 사대부들이었고, 그들이 종교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를 대했던 사실을 반영하는 이름이다.

비록 양반 사대부들이 먼저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천주학은 곧 빠른 속도로 사회의 각계각층에 퍼져나갔다. 위로 당대의 일류학자들로부터 아래로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입신자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더우기 유교사회의 신분질서 아래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감수해야 했던 부녀, 상민, 천민들에게 천주앞에 모든이가 평등함을 가르치는 새 종교야말로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그들에게 천주학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었다. 이는 바로 고대해 마지않던 복음이었다.

그러나 유교사회의 질서를 바탕으로부터 부정하는 이 외래종교는 멀지 않아 혹독한 박해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치는 탄압에서 수만 가톨릭교도들이 붙잡혀 목숨을 잃었다.

박해가 그중에도 심했던 곳이 서울이었다. 양화진, 새남터, 서소문 밖등의 형장에서 끔찍끔찍한 형을 받고 죽어가는 「천주학장이」들을 서울사람들은 거듭거듭 지켜볼 수 있었다.

천주학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처럼 사람을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까?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이런 소박한 의문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노릇, 남이 시켜서라면 안할 노릇이란 "천작"이라는 말을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우리 겨레를 가리켜 흔히 신념이 없다는둥 불의와 타협하기를 잘한다는둥 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스스로 얻는 바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버린 가톨릭 순교자들은 신념이 없는 사람들도, 불의와 타협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이야말로 누가 우리를 그렇게 공박할 때에 반증으로 내걸기에 족하고도 남는 표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톨릭교회는 선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져 들어온 사실을 큰 자랑으로 삼는다. 이는 교회사상 예가 없는 일로서 프랑스사람 달레(Dallet)의 말을 빌면 하느님의 은총이 어떠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산 증명이다.

스스로 받아들인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 우리나라의 가톨릭 순교자들, 그들이 흘린 피는 믿건 안믿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유산이다.

詩

꿈

조 미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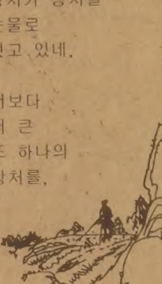
상처가 상처를
보고
웃네.

우는 듯
가만히
상처 둘이
웃네.

지나간 설움,
다가올 아픔
다 녹아서
흘러가라고

상처가 상처를
눈물로
씻고 있네.

저보다
더 큰
또 하나의
상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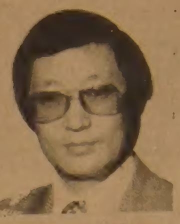


지불 어겼을때 모기지처리 방법

경제생활과 우리

VI 부동산상식 ＝황용현부동산 제공

③


황 용 현씨

채무자, 매도될때까지 집관리 의무지켜야

◉법적강제매도(Power of Sale)

채무자(Mortgagor)가 채권자(Mortgagee)에게 모기지의 불입금을 지불못할시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로 투자한 본인의 투자액을 반환받는 방법중 하나이다. 법정매도－Foreclosure와는 다르다.

법적강매제도가 성립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15일간 체납되어야 하며,

둘째, 그후 35일을 더 기다린후 채권자가 담보된 부동산을 법적으로 시장에 내어놓고 팔 수 있다. 채권자가 지정하는 부동산회사와 채권자의 변호사가 매도의뢰서(Listing Agreement)에 계약하여 시장에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채무자(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체납된 액수를 지불할때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채권자가 갖게 된다.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담당해야 한다. 채무자는 항시 체납된 액수만 지불하게 되면 법적강제매도에서 벗어날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부동산이 팔리기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된다. 다시말해 부동산이 법적강제매도 방법에 의해 팔려버렸으면 다시 찾을길이 없게 된다.

세째, 매도가격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정하기 보다 대체적으로 시장가격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 채권자는 본인의 투자액과 그동안 들어간 비용만 찾을수 있다면 팔려고 할것이다. 이런고로 부동산가격은 일반시장가격보다 싸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네째, 매도가 성립될 경우 자기가 받을 돈만 받을 수 있으며(투자액과 비용), 이외의 나머지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아주싸게 팔게되어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액수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잔액을 반환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하여 지불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부동산이 팔렸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게 아니고, 채권자가 받을 돈을 다 받고서야 해결되는 것이다. 채무자(부동산소유자)는 법적강제매도 상황하에서도 소유권을 아직 갖고 있으므트 자기집에서 살 수 있으며, 그러나 잔디도 잘깎고 눈도 잘치우고, 집을 깨끗하게해줄 의무가 있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을 깨끗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제3자로 하여금 하게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보낼수도 있다.

◉법정매도(Foreclosure)

이 방법은 법적강제매도(Power of Sale)와 달리 법정(Court)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채무자가 법정에서 지불통지가 오면 15일내에 서면으로 지불할 의사를 표시하면 최소한 6개월간의 기간을 법정으로부터 부여받아 문제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팔아 갚을 기회를 얻게된다. 만약 통지받은후 15일이내에 지불의사를 표시아니하면 법정은 즉시 소유권을 뺏아버린다. 채권자가 알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겨도 채무자와는 관계없이 된다.

만약 15일이내에 지불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자는 문제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강제로 장악하여 위에 말한 6개월동안 렌트도 주고, 사업체이면 직접운영하여 수입금을 모기지 지불에 적용시킨다. 6개월이전에 채무자가 지불이행을 못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주로 사업체인 경우 이 방법이 많이 적용된다.

희극의 왕 거구장 에 오다!
인기 톱클라스 가수진 출연!
기간 : 8 월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4 일간)

한식, 중화요리, 회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金夏廷

◇崔貞子

최고코메디안 배삼룡
저음유명가수 배 성 : 힛트곡"망향"
정상급 가수 김하정 : 힛트곡"야생마"
신인유망가수 김미리자 :

특별초대 민요가수 최정자 :
힛트곡 "처녀뱃사공"
(토요일 출연) "처녀농군"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742－1618

<스포츠 단상>

"10년후 토론토교포가 대표선수된다."

◆9일간 맹훈련을 받았으나 한국하키 수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

하키의 나라 캐나다를 찾은 한국 휘문고선수단.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휘문고가 거둔 3승1패의 전적이 정말 그들의 실력일까?

휘문고의 임병철코치는 "아마 10년후 한국대표팀은 전부 캐나다교포선수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국과 캐나다의 하키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 하키시설이란 토론토 한 동네만도 못하다. 유일의 실내하키링크인 동대문실내스케이트장도 여름에는 경비때문에 문을 닫는다. 문을 열어도 이 링크하나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0개, 대학 5개, 실업 1팀 그외에는 주한미군이 팀을 가지고 있다. 링크가 개막되면 이 20여개팀이 어울려 혼잡을 빚는다.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기회가 없다. 캐나다 어느 링크에서도 볼 수 있는 점보기(얼음깎는 차)도 한국에는 없다. 얼마전에 이 점보기를 수입했으나, 인천세관에 묶여있다.

현재 한국하키는 얼마전에 세계하키선수권대회 C그룹에 속했다가 하위를 기록, 다시 밀려나왔다. 세계선수권대회는 8개국씩 실력에 따라 A,B,C그룹으로 나뉜다. 매년 각그룹 하위팀과 다음 그룹 상위팀이 자리를 바꾼다. 한국과 북한은 C그룹에 속하나, 해마다 하위로 밀려 번갈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공산권과의 스포츠대결이란 문제에서도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하키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각 그룹의 실력차이는 현격하다. 얼마전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서 맞붙은 한국대표팀인 대학생선발팀이 캐나다대표 캘가리대학에 31:0으로 참패했다.

캐나다하키가 공산권을 제외한 서방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

링크1개가진 한국하키의낙후성
교포들의 재정·정보지원 절실

◆캐네디안 폴·토코프씨의 코취를 받는 휘문고 선수들.

메달을 딴 미국도 실은 캐나다하키의 덕이다. 이때 미국대표팀의 주전선수들은 전원 미국대학생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들은 서로 캐나다선수들을 장학생등으로 유혹, 자기팀의 실력을 높였다.

이 캐나다선수들 밑에서 배운 미국대학생들이 어쩌다 "봉사 문고리 잡듯"이 소련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지난4월 핀랜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미국을 격파하고 캐나다와 동점을 이루었던 이태리팀도 실은 캐나다팀이나 다름없다. 욕대학에서 코취했던 데이브·챔버스가 코취를 맡고 메이플·립스의 밥·매노, U of T선수였던 캐론·프렐리등 이태리계 캐네디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독이나 네델란드의 실정도 마찬가지이다.

임코취의 말대로 이제 자라나는 캐나다교포소년 하키선수들도 한국대표선수가 되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날이 멀지 않았다. 이번에 휘문과와 대전한 교포팀 화랑의 최성길 같은 선수는 한국대표팀에 갖다놔도 손색이 없다고 임코취는 덧붙였다.

휘문고는 이번 친선경기에서 거둔 3승1패의 전적을 갖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된다. 이들과 대전한 팀의 수준은 뒷골목선수 정도에 불과하고, 화랑에 거둔 6:5의 승리도 결코 만족한만한 것은 못된다.

온타리오하키협회의 채드·한나씨는 매년 100여개 외국팀이 훈련차 캐나다에 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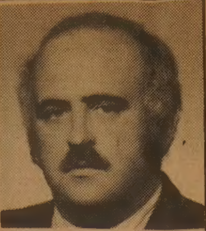
다음에 또 올 한국팀들은 여행자체보다는 훈련에 목적을 두고 3~4주 긴 기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한국을 위해 캐나다교포들은 한국하키팀의 훈련을 재정적으로 돕고, 하키의 정보등을 알려주는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휘문고 단일팀이 왔으나, 이 팀의 방문이 결코 교포소년 하키선수의 학부형이나, 학교동창들만의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유승민기자)

한국근로자는 주80시간 노동
북미의 두배, 안전대비없어



◆모리아티씨.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근로자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내내 일하며 한달에 3일밖에 쉬지 않는다.

북미의 근로자들이 일주 35~40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까이 많은 시간을 일한다. 이같이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일의 효과는 그만큼 나지 않는다. 이유는 현대적공구의 부족(동력사용공구는 극히 보기 힘듬)과 함께 중동등 해외로 많은 근로자들이 유출돼 유능한 근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인근로자들은 매우 정직하다. 그동안 나는 좀도둑이나 고의적 파손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안전세칙에 거의 신경을 쓰지않아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많이 내는 점이다.

무슨 중요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돼지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 우리같은 외국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사진을 찍느라고 법석대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본국에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화제가 된다. 한국인들이 흔히 마시는 막걸리는 보기 보다는 맛이 좋았다. 2,500명의 근로자들이 매일 가까운 마을로 점심먹으러 나가는 것과, 공사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여성, 그리고 일꾼들이 지게에다 짐을 실어나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은 매우 좋았다. 우리는 공사장에서 1Km떨어진 바로 동해변의 관사에서 살았다. 우리집은 캐나다에서 살던 집과 거의 차이가 없이 시설이 잘 돼있었다. 이곳에는 케네디언 학교와 교사도 있었으며, 부패하지 않는 음식들은 직접 수입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주로 나리와 양남과 같은 근처 시장에서 쇼핑을하나, 울산이나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원정가기도 했다. 신선한 과일, 채소와 물고기들은 언제가도 풍부했으며, 값도 비싸지 않았다.

그러나 쇠고기는 따로 파는데가 없어 근처 불고기 집에서 1Kg당 9천원($8.00/lb)에 사다 먹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쇠고기를 그램(Gram)으로 조금씩 사가는데 반해 우리들은 4~10Kg 덩어리로 사가 그들에게 매우 호화스럽게 사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서투르나마 한국말도 필요한만큼 사고 대금을 치룰수 있게 될 때까지는 수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불고기집, 중국음식점, 생선회집등을 돌아다니며 식도락을 즐겼다. 처음에는 마루에 앉아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큰 고역이더니 횟수를 거듭할수록 제법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제적호텔같은데서도 곧 우리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써비스는 언제나 예외적이고 친절했다.

새로지은 호텔들은 세계 어느 호텔과 비겨 손색이 없을정도 시설과 써비스가 좋았다. 비록 준비와 접대면에서 좀 더 고쳐야 할 점이 있지만, 음식은 훌륭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인간성과 특성에 감명을 받았다. 캐나다농촌을 연상시키는 그들의 친절함, 가족구성원간의 강한유대감, 장남이 부모의 가산을 물려받는 대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점, 연장자에 대한 존경,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제도, 자손의 밝은 장래를 위해 한국을 경제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피땀나는 노력, 지난10여년동안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 조선·제강·전자·자동차산업 부문에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점, 음악·문학과 같은 예술에 대한 사랑과 어려운 경제조건에도 불구, 대부분이 인생을 즐기는 것 등이 한국인의 장점이다.

부정적측면으로는 아직도 가족구성원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국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왔다.

우리들은 관광여행으로 대부분 서울, 대구, 부산과 같은 대도시나 여러 사찰들을 방문했다. 서울은 인구만 8백만의 거대한 도시로 매우 인상적이였으며, 통금한시간전 택시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행인들의 광경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신발들만 산더미처럼(높을때는 10피트정도) 쌓아놓은 작은 길거리의 신발가게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싸이즈 11(남성용), 싸이즈 9(여성용)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많은 한국인동료들과 친구가 되는 행운을 가졌다. 여러 한국인가정에 초대받은 우리는 김치, 생선회, 잡채, 볶은밥, 만두, 불고기등 한국고유의 음식을 맛볼 기회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함께 즐겼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들(한국인과 캐네디안)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놀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볼때 놀라움과 즐거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왔다. 가구, 김치항아리, 한복, 놋쇠제품, 목각및 그림등이 우리가 가져온 품목중의 일부이다. 여러가지 선물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한국사람과 동물을 담은 4개의 앨범과 마음속 깊숙이 간직된 한국에 대한 추억으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운 친구들과 재회의 술잔을 나누고 싶다.

◆딸의 친구가 된 나리양의 식구들과 기념촬영.

"한국계 경관 시급하다"
에트닉전담경찰 본사방문

메트로·토론토경찰 에트닉전담반의 페르난도·드·알메이다형사와 리·루랭소형사는 4일 본사를 방문, 한국계 경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에 관한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을경우 언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에트닉전담반은 시경찰국이 토론토가 여러민족이 어울려 사는 도시로서 각 인종의 문화적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힘든 점을 감안, 지난 73년도에 창설, 현재22명의 멤버를 갖고 있다.

에트닉전담반은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국어, 인도어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유능경찰관들로 구성, 주로 에트닉사건을 처리하며, 한국어 구사자는 아직 없다.

알메이다, 루랭소 두 형사는 "한국 코뮤니티의 권익을 찾기위해서는 한국계 경관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온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경찰지원자가 적은것은 이해하나 캐나다경찰은 자부를 가질만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소개한 경찰관 자격자는 (1)12학년이상 학력 (2)신체제한 없고, (3)21세이상(18세이상 21세미만은 경찰 후보생이 될 수 있다.) (4)운전경력이 있고, (5)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메트로경찰의 초봉은 연$3만정도, 소정의 훈련기간 동안도 봉급및 수당을 지급받는다.

응모는 967-2391, 메트로 경찰고용사무소(Employment Office; 590 Jarvis St,)로 하면 된다.

—총영사관 인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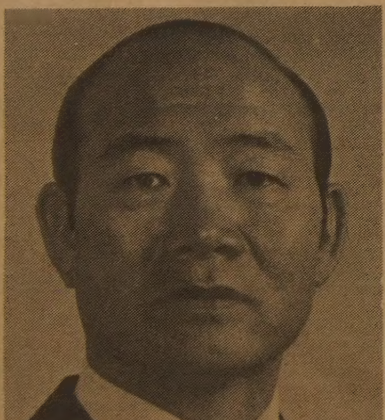
박종선 부영사 본국발령
차상덕 부영사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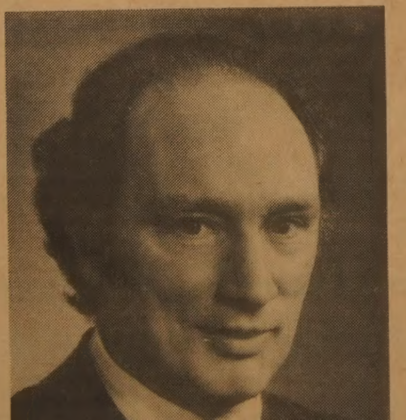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영사및 경제문제를 담당해온 박종선부영사가 외무부정기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9월30일부로 본국에서 근무하게 됐다.

지난 7월26일자 외무부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토론토 총영사관으로 부임케된 부영사는 그동안 외무부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한 차상덕(28)씨로 알려졌다.

떠나는 박부영사는 지난해 5월부터 토론토에서 근무해왔으며, 차신임부영사는 토론토가 첫 해외근무지이다.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캐나다 '88올림픽후원회 회장 함의현 외 임원일동

◆여러 얼굴의 몬로—풍만한 육체에 블론디머리를 가졌던 마릴린·몬로는 사망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펜들의 기억에 생생한 「섹스여신」이다. 사진은 40년대에서 부터 '60년까지의 몬로모습으로 왼쪽부터 1950, 1952, 1954, 1962년에 찍은필름.

마릴린·몬로 일기발견
탐정 공개대가로 만불요구

(헐리웃)고 마릴린·몬로의 분실됐던 붉은 일기장이 한 헐리웃사설탐정에 의해 발견됐으며 일기 발견자는 마릴린·몬로의 죽음은 국제정치와 관련이 있음을 일기를 통해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헤럴드·이그재미너지가 2일 보도했다.

일기를 발견한 사설탐정은 일기공개댓가로 1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니키·해리스탐정회사의 밀로·스페리글리오 디렉터가 간접적으로 전한말에 따르면 최근 좌천된 LA카운티 검시관 토머스·노구찌는 1962년 몬로 사체를 검시하면서 사인을 가볍게 취급, 약물과용에 의한 자살로 처리했다는것.

또한 스페리글리오는 문제의 일기가 뒤에 검시관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구찌는 스페리글리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몬로의 사망은 자살이라고 거듭 단정했다.

스페리글리오는 분실된 몬로의 일기가 공개된다면 몬로와 존F·케네디대통령 및 동생 로버트·케네디장관의 삼각관계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에서는 몬로가 로버트·케네디와의 사랑이 깨지자 비관, 자살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스페리글리오는 또한 몬로의 일기는 CIA가 피델·카스트로수상을 암살하려던 기도를 몬로가 알고있었으며 몬로는 암살자로부터 그같은 사실을 발설치 못하도록 저지당했다는점을 폭로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殺意斷層 ⑨
金聖鍾작

이번엔 2천만원… "半만은 안될까요"

그들은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 앉았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뛰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남편이었다.

『난데…왜 전화를 안받지?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예요. 화장실에 있었어요.』

『옥자는 어디 가고?』

『심부름 좀 보냈어요.』

그녀는 뛰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다.

『저기 말이야. 저녁에 어디좀갈데가 있는데 몸이 좀 어때?』

『어딘데요?』

『파미야. 회장님 댁에서 하는건데 회장님 생신 파티야. 웬만하면 같이 가도록 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나 어지러워서 죽겠는데….』

『모두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나혼자 홀애비처럼 가란 말이야? 잠깐얼굴만내밀었다가 돌아가.』

『알았어요.』

『6시 반까지 차를 보낼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돌아서자 모세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이제 돌아가주세요. 남편이 온댔어요.』

『아직용건은 꺼내지도 않았어.』

『또뭐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내일까지 2천만원을 입금시켜. 온라인넘버는 그대로 야.』

문자는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내일까지야. 기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줄 알지?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시시하게 재촉한다거나 하지않아. 그런건 딱 질색이니까 알아서 해. 두번 다시 말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해요.』

『그건 사실이야. 나를 보통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특별하니까 이런 짓을 하지.』

『처음엔 5백…그다음에는 1천…세번째에는 2천…다음에 올때에는 4천이 되겠군요.』

『잘 아는군.』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죽이긴 왜 죽여. 죽이면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아.』

『도대체가…. 안 돼요. 이번에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모세는 코트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내일까지야.』

문자는 그를 가로 막았다. 그리고 애처롭게 호소했다.

『부탁이에요. 제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 2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부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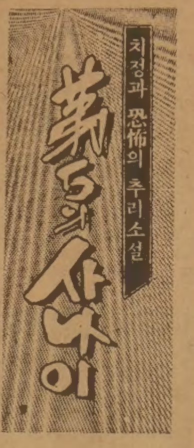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2천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반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반으로 깍자는 건가? 어림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는 그녀를 밀어제치고 현관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제발….』



<42>

朴 男 그림

이민도시 II

서 만 수 (토론토교포)

성스럽고 아름다워야할 결혼식장에서 은주는 어깨를 자주 들먹였다. 일생에 한번있는 결혼식날 짓궂게 비가 내려서도 아니고, 20여명 모인 하객들이 적어서도 아니다. 그처럼 믿고 다짐받았던 부모님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까닭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내릴 뿐이다. 앞으로 일생동안 남편으로 모셔야할 신랑만이 다 안다는듯이 손을 꽉 쥐어줄뿐 은주 가슴속에 응어리진 서러움은 여간해서 진정될것 같지 않다.

"아버지! 중국사람이면 어때요. 왜 꼭 한국사람하고만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죠.

아버님도 이민생활 오래하시고 여기 습관도 거의 이해하신다고 하고선…". 하며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좌우지간 안돼. 특히 중국놈이나 일본놈, 검둥이 자식들 다 안돼. 잔말말고 내가 알아본 그 청년하고 선이나 봐라." 은주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수가 없었다. 특히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 흑인들에게는 말끝마다 꼭 놈자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질색을 하는것이다.

그네들에게 감정이 있다면 옛날 일본인이 36년간 한국을 통치했다든지, 중국인들에게 피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라든지 하고 이야기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다.

은주가 사귀고 있는 중국청년은 홍콩에서 유학온 유학생이다. 우연하게 친구 소개로 알게되어 캐나다에 먼저온 은주가 선배입장으로서 그에게 여러가지 알고 있는것들을 알려주었고, 그러다보니 서로 좋아졌고, 서로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

그간 부모님께 몇차례 이야기를 꺼냈었지만 서슬이 시퍼런 아버지 얼굴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다가 홍콩에 사는 그의 부모님으로 부터 결혼해도 좋다는 승낙과 함께 그의 결혼독촉이 심해졌다.

은주는 그 때문에 많은 번민을 했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끼친다해서 그와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은주 자신이 그를 사랑한만큼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많은 연인들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나라도 부모들도 버리면서 그 소중한 사랑을 찾기위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의 반대만으로 이 진실한 사랑을 포기해야 옳은가.

결국 은주는 편지를 남겨놓고 그를 따랐다. 친구를 통해 부모님들이 찾는다는 연락이 잦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님조차 용서해줄테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꼭 집나간지 3개월후에 은주는 집을 찾았다. 그리곤 부모님께 잘못을 빈후 3일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부모님께 하얀 사각봉투안에 든 청첩장을 내보였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떡하우. 재 심정도 우리가 이해합시다."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은 어머님의 말을 듣고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1982년 6월21일 은주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럼 이따 오후6시에 뵈요. 장소는 약도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조금 일찍나오세요. 모든것도 그쪽에서 준비했으니까요."

결혼식30분전 은주는 몹시 초조했다. 집에 계속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다. "곧 오실거야. 전화를 계속해도 안받으시시잖니? 너무 염려말어. 그러다간 화장한것 다 지워지겠다." 친구의 말도 은주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에게 줄 패물도 준비안됐다. 그정도야 부모님쪽에서 알아서 해주리라 믿었기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고 그가 말한다. 조금만 조금만 한것이 벌써 1시간이 넘었다. 그렇지만 은주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혼행진곡이 흐른다. 이제는 정말 어쩔수가 없다. 목사님을 향해 서있으면서 은주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몸을 가눌수가 없었다. 그래도 (지금쯤은 오셨을거야. 오셨구말구.)

선물교환때 언제 그가 준비했는지 반지까지 준비했다. 아직도 부모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리가. 은주는 북받쳐오르는 설움을 참을수가 없었다. 화장이 지워지는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비가 오든 폭우가 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20여명밖에 모이지 않은 하객도 문제가 아니었다. 어서 빨리 부모님들의 얼굴이 은주 눈앞에 비치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6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 면	.89	~~.99~~
냉 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0~~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 신품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협회 창립기념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에서는 창립2주년기념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월21일(토) 낮12시
장 소 : Pro 10Pin Bowl, 877 Wilson Ave, (Between Keel & Dufferin)
시상및 종목: 혼합전 1·2·3등
개인전 남녀 1·2·3등
개인전 핸디 1·2·3등 (A,B,C, W,I,B,C에 적용한 핸디)
하이씽글 남녀
참가비 : 개인전 3게임 $ 7.00
혼합전 각3게임 $12.00
연락처 : Mr.정 (742-2193)
Mr.장 (759-8228)

한인볼링리그 회원모집

볼링애호가들의 희소식!
금번 볼링협회에서는 82·83년도 볼링리그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9월 3일~1983년 5월 6일까지 (34주)
(매주 금요일 오후6시45분~9시까지)
장 소 : Pro 10Pin Bowl, 877 Wilson Ave.
참가범위 : (1)캐나다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누구나되며 소정에 입회원서및 회비납부에 의무가 있음.
(2)12팀(4인조)48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팀구성은 차후결정됨.
〈회원의 혜택〉
▲ A,B,C, W,I,B,C에 가입되며, 회원증을 받고 전북미지역에서 발행되는 볼링에뉴얼북에 에버리지가 기재됨.
▲ 각종대회및 회원파티에 참가함.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연락처 : 장인택 759-8228
오상균 622-0224

재캐나다 한인볼링협회

용산 동문야유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용산중고등학교 동문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겠사오니 가족동반 하셔서 많이 참석하시어 동문 우의를 굳게다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게임과 오락을 준비하고 이에 많은 상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월14일(토) 오전11시
◈장 소 : G. Ross Lord Park (더프린×휜치)
◈연락처 : 신현수 ☎ 222-8237
김동혁 ☎ 275-8718
표한구 ☎ 745-9995
이창명 ☎ 299-4787

용산동문회장
신 현 수

日側의 無誠意한 태도를 重視
政府, 是正위해 強硬대책
어제 마에다大使 불러 "友好악향영" 覺書전달
金총리주재 連이틀 對策회의

정부는日本역사교과서의한국부분歪曲에대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是正을 기대하며靜觀자세를 취해왔으나 지금까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重視, 歪曲記述의 즉각시정을 거듭촉구하는등 적극적이고 強硬한 對應자세로 전환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따라 李範錫외무장관은3일하오6시30분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를외무부로불러말썽을 빚어온日本교과서의歪曲기술이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對韓침략을 糊塗하고 양국의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일로서 遺憾을표명하고 歪曲부분을즉각是正하도록촉구하는내용의覺書를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28일 양일간 駐日대사관과 30일 崔東鎭 亞洲국장이 口頭로 일본측에 歪曲시정을 요구했으며 文書로是正을 강력히촉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이에앞서2일에이어 이날상오金相浹국무총리서리 주재로金埈成부총리李範錫외무李奎浩문교李振羲문공등관계장관들이 참석한가운데 日本역사교과서 歪曲문제에 관한 긴급회의를갖고 歪曲是正을위한 多角的인 대책을 검토한끝에 우선 駐韓대사를통한 정부의 강경한입장을 전달키로했다。

정부는 지난달31일 日本측이 外務省과 文部省을 통해 우리측에 전해온 공식답변을 일단 是正에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판단해왔으나 是正시기가 지연되고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점을 감안, 日本측의 성의있는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그동안 정부는 日本이 友好國의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自律的인 是正자세를 보일것으로 기대하면서 의연한 입장에서 원만한 외교적 대응과함께 民間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요구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문제와 관련 日本정부 일각에서 「즉각是正」이 아닌 「협의후 是正」이란 반응뿐으로 만족할만한 반응이없어 이같은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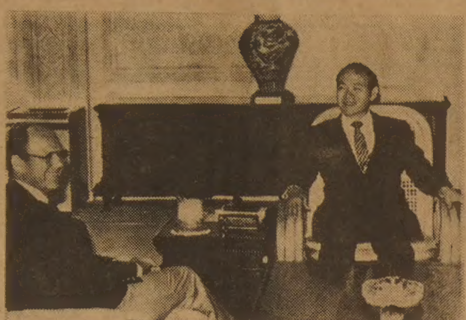
이소식통은 또 『일본역사교과서歪曲是正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이는 韓日간의 기존友好관계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覺書내용〉

이날 李장관이 마에다대사에게 전달한 우리정부의 입장 요지는 다음과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의 교과서 왜곡부분 시정요구에대한 7월30일 日本정부 회답과 文部省 설명에 시정에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이와 같은 日本정부 태도는 我國의 비등한여론과 국민감정을 가일층 자극하고 있는바 이러한사태가 계속되어 韓日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될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따라서 한국정부는 本件에대한 日本정부의 신속하고도 구체적 시정조치를강력히 요구하는바이다』

外務部



올손 美다코타知事 全대통령, 접견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3일하오 청와대에서 美 노트다코타州의 알렌·올손知事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이자리에는 헤프너駐韓美공군사령관이 배석했다。〈사진〉

日文部相, 態度 후퇴
"再改正 전혀 생각없다는 말 안했다"

【東京3日=宋孝彬특파원】교과서歪曲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강경일변도에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교과서歪曲의 주무부처인 일본 文部省의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 文部相은 2일 교과서사 교과서에서 歪曲검정된 한국및 중공관계부분의 재검정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오가와 文部相은 이날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및 중공측의 교과서 修正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사태발전여하에 따라 왜곡부분의재개정이 가능할수 있음을 분명히 비쳤다。

요미우리(讀賣) 마이니찌(每日)등 일본 주요신문들은 오가와 文部相의 이같은 발언이 교과서 재수정검토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가 강경입장에서 후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3일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찌신문은 지난 80년에도 검정이 끝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완료후에 재수정한 先例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가 우선한다는 정치적결단만 내려진다면 재개정절차는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보도는 당시 과학기술청이 원자력발전소의위험성을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대해불만을 표시한결과 결국검정이 끝난뒤 8개社중 6개社가 이부분을 재개정한 先例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니찌신문은 검정이 끝났더라도 교과서회사가 文部省에 재검정을 신청, 이를 승인받으면 재수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정이끝나 수정이 일체불가능하다는 文部省측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내에서는 外務省을 중심으로 韓·日및 日·中共 우호관계를 위해 歪曲부분의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自民黨과 文部省은 외국의 요청에 의한 교과서의 재검정및 재수정에 반대하고있어 교과서 歪曲문제는 韓·日·中共3국간의 외교관계는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논쟁의 초점이 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중공측이 오가와 文部相의 北京초청을 취소했으며 스즈끼(鈴木)수상의 9月 訪中이 역시 이번교과서문제로차질을 빚게될지 모를것으로 우려되는가운데 일본정부는 2일 총리실과 외무성 관계자간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면타개방안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妙案을 찾아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自由中國서도 우려覺書전달

【臺北3日CNA=聯】자유중국정부는 지난달31일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해 우려를표명하는 각서를 일본당국에전달했다고 믿을만한 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拉北어부 귀환위해 國赤서 好意的반응

외무부는 지난달13일 鬱陵島동북방 공해상에서 조업중 北傀무장함정에의해 拉北된 제5馬山號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및 美國、스위스、덴마크、핀란드、말레이지아、사우디아라비아등 주요友邦國적십자사와 접촉한결과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3일 발표했다。

4·5級 2백15명 部處교류

정부는 3일 全政府的차원에서 開放人事관리체제의 확립 원칙에따라 중앙과지방행정기관의 課·係長級에 해당하는 4·5급 공무원2백15명에대한 대폭적인 部處간人事교류를 단행했다。

人事交流위원회가 심의확정, 이날단행한이번인사교류대상은 4급49명, 5급1백57명등 2백6명과 6급稀少職(司書·통계·전산등) 9명으로 교류범위는 중앙부처와 市·道간 중앙부처 상호간, 稀少職列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機關別 교류내용은▲중앙부처와 市·道의 관련부서간 95명(4급20명·5급75명) ▲중앙부처 상호간 1백1명(4급29명·5급72명) ▲稀少職列의 부처간 교류 19명(5급10명·6급9명) 등이다。

정부는 또 昇進凍結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곧 30여명에 달하는 4급(부이사관)의 3급승진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日本쪽이래야만되는가 〈3〉
王朝末
韓民族무시해온「同化」發想
罪責대신 從屬착각 아직도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문제된 이번 일본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歪曲되었는가。이에대하여 우리의 관계연구기관이 近代·現代에 관한 부분만 우선 일곱가지로 정리 분석했다는 것이 며칠전에 報道되었었다。

이 직후에 우연히 만난 그 연구기관의 幹部한분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이 보도를 보고 문제점은 그 일곱가지 뿐이라고 誤解를 하는 독자는 없을까』하는 것이었다。아마도 그런 오해는 없을 것이고, 그 분석은 根據資料의 제시를 포함하여 要點은 고루 망라되어있는 것으로 나는 보았다。여기서 그 일곱가지를 다시 『뒤져보는것은 무슨 유력한 근거를 보태자는것은 아니고 다만 그實態가 어떠했는가의 몇토막을 새삼들이켜보자는 것이다。

첫번째는, 日露戰爭이끝난뒤의 侵略의 本格化에관한것。이전쟁 이후로 일본이 한국에대한『進出』을 본격적으로 開始』했다는 것이고, 1905년의 乙巳5條約과 1907년의 丁未7條約으로 일본이 한국의 外交權과 內政權을 차례로 『接收』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伊藤博文이 대한제국의 外交權을 일본이 「統理」한다는 등의 條約案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한 것이 일로강화조약체결 2개월뒤인 1905년11월9일。그리고 1주일남짓인 11월17일 深夜에 5조약이 勒締(강제체결)된 것이다(朴殷植의 〈痛史〉·〈血史〉에서는 「勒締」「勒約」등의 용어가 자주 쓰이고있다)。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적을 지면은 없지만 마지막날 일밤의 상황을 기록한 우리측 大臣 한사람의 手記는 弱者의 비애를 담은 채 사뭇 처절하기까지하다。

이날 일본측의 강요로 지금德壽宮에서 御前閣議가 열린다。각의가 뾰족한 대안없이 전후다섯시간을 끌자, 특명전권대사 伊藤博文은 전쟁중부터 서울에사령부를차리고있던주한군사령관 長谷川好道와헌병대장 明石元二郞을 대동하고 헌병수십명의 호위하에 궐내로 향한다。헌병들은 회의실을 둘러싸고, 伊藤은 아예 회의실에들어서서 위협을하다가, 나중에는 各部大臣들에게 포로 심문하듯, 개별적으로 하나하나『可냐否냐』를 따지는 지경이 된다。

수상 韓圭卨이 무조건不可를 외치자 그를 別室에 연금해놓고, 결국은 우물우물하는 답변까지 합쳐『대신 8인중 5인이 찬성했으니 可決』이라고 伊藤이 선포한다。

외국사신이 이나라 閣議를 멋대로 主宰한 꼴이 된 이 한심하고도 부끄러운장면。그러나 이렇게해서 빼앗아간 外交權을『접수』라고 적어도 좋은가。이것이『침략』아닌『진출』인가。

高宗帝는 이직후에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顧問 「헐버트」에게 密書를 보내『朕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체결된 소위 保護條約이 無效임을 선언한다』고 했다。비록 空山의 메아리가되기는 했지만, 우리측의 진심은 그랬던 것이다。제2차 義兵이 각지에서 벌때처럼 일어난것은 이몇달뒤 부터다。

이듬해인 1906년3월, 일본은 統監府를 서울에 차렸다。그해 7월에는 高宗帝가 거처하던 德壽宮이 점령되어 대궐의 警衛權마저 일본인 경찰에게 넘어갔다。

또 이듬해인 1907년 7월초에는 高宗帝가「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密使를 보낸 것이 드러나 이것이 빌미로 일본은 高宗帝의 讓位를 강요하기 시작했다。7월20일 讓位式에 일본군은 식장 德壽宮에 1개大隊를풀고 南山에는 野砲6문을 배치했다。서울거리는 撤市·示威、市民과 일본軍警의 충돌이 잇달았다。그며칠뒤인 7월24일에『한국정부는施政改善에 관하여 統監의 指導를 받는다』는 이른바7條約이 政府레벨로서는 아무 저항도 없이 강행되었다。7월31일에는 얼마 되지도 않던 경향각지 韓國軍의解散이 강행되었다。이것이 일본 교과서가 말하는 內政權의『접수』였다。

일곱가지 문제점의 두번째가 이 讓位에서 合邦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 관한 것인데、『조선민중은 각지에서 저항을 했으나 일본은 군대의 힘으로 이것을 鎭壓…한국을 완전히 일본의 통치하에 두었다』고 일본 교과서는 적고 있다 한다。

우리 義兵은 1909년 일본의 소위『南韓暴徒大討伐』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국내에서日軍과 충돌한 의병의 기록은 합방후 3년인 1913년까지도 남아있고、그들의 일부는 滿洲로 移動해가서 후일의 만주「독립군」의 源流를 이루게 된다。그러나 저러나 일본으로 보면『진압』이 된 셈이지만『한국을 완전히 일본의통치하에 두었다』고 한 그 다음 귀절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합방1년전에 일본閣議가 결정한 合邦의 방침은『한국이 완전히 廢滅해서 帝國領土의 일부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것은 관계 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후일 3·1운동이 터지자 大正天皇은『一視同仁』을 내세우고 조선총독 長谷川好道는『同化』를 내세우고 수상 原敬은 구체적으로『조선은 일본의 版圖로서 屬邦이 아니다。또 植民地가 아니라 곧 일본의 延長이다』라고 했다。

숫제 韓民族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는 植民政策이고 도 다른데에 유례가 없다고들 하는 이 대원칙이 합방때에 벌써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다。『완전히 일본의 통치하에 두었다』는 서술로、韓민족에 대한 일본의 이 끔찍한 構想이 조금이라도 비쳐졌다고 볼수 있겠는가。

이번 교과서 문제에서도 일본측의 良識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사학자 旗田巍씨는、한일회담이 한창이던 1965년에 이런글을쓴바있다。

ㅡ「同化」정책은 일본인의 조선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ㅡ첫째、조선인을 獨自의 민족혹은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意識이다。…거기에는 조선인을 獨自의 존재、價値있는 존재로 보는 의식은 없었다。그 의식은 지금도 남아있다。

ㅡ둘째、조선의 식민지적 지배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罪意識의 결핍이다。그것(식민지지배)은 조선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이러한 의식 역시 아직도 남아있다。

ㅡ셋째、조선인에 대한 우월감·멸시감이다。同化라고 해도 현실의 支配·被支配의 관계는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7·3조치」공청회 公述人 5명을선정
民韓黨

民韓黨은 오는6일 서울세종회관에서 黨주관으로 개최할 6·28및 7·3경제조치에대한 공청회의 公述人으로 李滿基(漢陽大교수) 柳漢晟(高麗大교수) 金成斗(조선일보논설위원) 申泰植(全經聯전무이사) 李相昊씨(中小기협중앙회 관리이사)등 5명을 선정했다。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은 3일 이번 공청회에서나타나는 의견을종합하여 實名거래제의 실시에관한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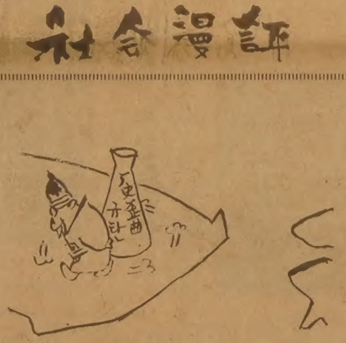
이번 공청회에서는 崔庚仙(商議조사부장) 金載龍(東西증권이사) 金昇植씨(韓銀상무이사)와 黨소속 朴完奎 洪思德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토론을 벌인다。

533·2361

광고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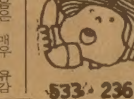
533·2361

社會漫評



"한마디 해야지…"

한국일보



533·2361

地平線

「길가에 피는 민들레는 밟히고 밟혀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씨를 맺는다。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뜻을 굽혀서는 안된다」。이말은 한국에 보이스카우트를 처음 창설한 趙喆鎬가 일경에 체포되어 북간도로 망명할때 소년들에게 당부한 귀절이다。▼세월이 흘러 한국보이스카우트가 올해로 환갑을 맞는다。茂朱九千洞의 德裕山국립공원 야영장서는 이뜻깊은 창립60주년을 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잼버리가 오늘 막을 올린다。세계24개국에서 1만2천명이 참가한 이번매머드대회 주제는「나라위한 스카우팅」이다。▼全斗煥대통령은 지난달 이대회준비현장을 직접 시찰했었다。全대통령은 그자리에서「자라나는 우리청소년들에게 확고한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우의를 다지고 봉사정신·창의력·개척정신을 함양키 위한 이번대회의 다채로운 여러 행사가운데 통일기원제가 특히 눈에 띈다。외국대표단의 민박도 마련돼 있다。88올림픽을 앞둔 한국인의 참모습을 보여줄 좋은 계기가 될 잼버리임에 틀림 없다。▼우리로선 60년이 됐지만 보이스카우트운동이 세계적으로 처음 전개된것은 1907년、75년전이다。영국의 브라운시섬에서 보아전쟁의 영웅 로버트·베이든·포얼중장이 스무명의 소년을모아 캠프를 한것이 그 최초이다。황소등 동물이름을 딴 4반으로 나눠 산림의조사、관찰、수영、밧줄묶기、취사、체조、보트、응급구조、순찰、고래잡이 놀이등을 했다。개척정신과 美德을 심어주려 한것이다。제복은 처음에 없었으나 그때 이례적으로 半바지를 입고 나침반을 본떠 기장을 만들었다。영국중류가정의 소년들이 속속참가、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수천만명에 이르러 종교단체를 제치면 국제조직으로는 세계최대의 단체로된것이다。▼우리 국내보이스카우트가 생겨난것은 일제식민지 시대인 1922년、조선소년군이란 이름으로 趙喆鎬가 발족시켰고 趙聖采가 조선소년척후대를 곧이어 만들었다。2년후 이 두단체는 통합됐으나 1937년 일제에의해 해산당했다가 光復다음해에 재건됐다。小波가 시와동화로 어린이들에게 애국심과 정서를 심어주었다고 하면 武官출신의 趙喆鎬(당시 중앙고보체육교사)와 Y출신의 趙聖采(소년부간사)는 단련과 우애와 신의를 뭉친 독립군의척후를 만들려고 했었다。▼그 당시 中央고보 뒤뜰에서 푸른색모자에 연회색 단복·분홍색휘장을 두른 8명의 보이스카우트 대원과 오늘의 30여만단세、그리고 1만2천명 잼버리를 비교하면 감회가 깊다。산좋고 물맑은 茂朱九千洞、자연의 품안에서 불타오르는 캠프파이어를 바라볼때 선구자가 격려하던 민들레꽃 생각이 저절로 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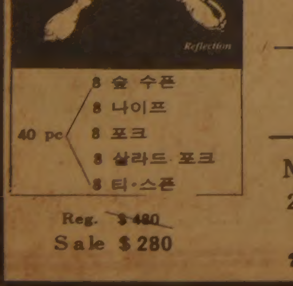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SANDY'S GIFT & CHINA

세일기간 : 7월중순~8월중순(1달간)

BRIDLE REGISTRY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분들을 위해 고급 자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시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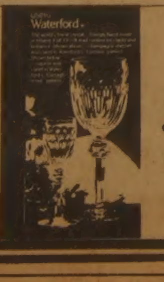


8 숲 수픈
8 나이프
40 pc 8 포크
8 살라드 포크
8 티·스픈

Reg. $480
Sale $280

— 각종 고급 자기류 구비
◎최고급 독일 Rosen-thal
◎최고급 영국 Wedgwood(40% off)
— 고급 아일랜드제 Waterford Crystal(30% off)
— 재고 Stock이 제한되었사오니, 선착순에 한합니다.
— 고급 스텐레스 취급

30% ~70% Off



고급
아일랜드
크리스탈

Markham place
2900 Steels Ave. E.
(돈밀 × 스틸스)
☎ : 889-4216 Mrs. 허

여름을 시원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 각종 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지금도 고칠수 있다"

日本史쓴 나가하라교수가 밝히는 內幕

本社 宋孝彬 특파원 特別인터뷰

改惡않으면 檢定통과 안돼

잘못된건 빨리잡는게 현명

【東京3日=宋孝彬특파원】 일본고등학생용 日本史와 중학생용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히도쓰바시(一橋)대학의 나가하라(永原慶二·60)교수는 3일 교과서에서의 史實왜곡이 필자와출판사의 자율적 개선의견에 따라진행됐다는 文部省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잘라말하고 일본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나가하라교수는 내년에 사용할교과서는 지난6월 검정이 끝난뒤 7월에 전국중고등학교에 전시,선택의 기회를 준다음 오는10월까지 인쇄에들어가기 때문에 訂正할시간은 아직남아있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성을 띤 문부성의 수정의견은 물론이고 자율적인 개선의견마저도 빨리 검정을 마쳐야한다는 필자와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수정의[견과] 다름없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가하라교수는 근세사는 물론이고 고대사도 이웃나라와의 交流史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역사는 皇國史觀에입각,일본만의 역사로 기술되는 경향이 많기때문에 불필요한 우월감과 편견을 낳게한다고 지적하고 고대사를 정확하게 기술하기위해 한·일양국의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가하라교수와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왜곡교과서문제가 한국의 강력한 항의와 중공의 오가와문부상의 訪中취소등 새로운 외교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왜곡교과서문제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차대전후 일본은 제국주의의침략과 군국주의의 죄과를 깊이 반성하는데에서부터 출발했다. 올바른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평화헌법밑에서 일본의 경제가 자유세계제2의 강국으로 성장,자신을 갖게 되면서 이인식의 원점을 망각해가는 경향이 있다. 지도층도 의식적으로『반성의 원점』을 잊으려는면도 없지 않다.

왜곡교과서문제는 제2차세계대전前의 제국주의 침략을 美化하려는 데 문제가있다.

—일본은 2차대전으로 2천만명의 죄없는 다른나라국민을 희생시켰고 역시 3백만명의 일본국민이 죽었다. 군국주의의역사적죄과를 감추려는저의는 무엇인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가?

▲왜곡교과서문제를 군국주의의 부활로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자위력의 증강에따라 애국심교육이 필요하다고 위정자들이 판단하고있는 것 같다. 애국심교육을 위해서는 과거의역사적 잘못을 될수 있는한 미화·합리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심은과거의 역사적 죄과를정확히 인식시켜 반성함으로써 가능한것이다. 날조된 역사속에서의 애국심교육은『모래위의집』과 같다.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없고 날조된역사가 밝혀지면 모두 무위로돌아가고만다.

—문부성은 검정이 자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명이라기보다는 거짓말에 가깝다. 78년 내가 중학교용 사회교과서를 집필·검정할때 중국대륙에로의 침략이란 용어를『進出』로 고치도록 강제성을 띤 수정의견으로 나왔다. 금년에는 침략을『進出』로 고치도록하는 개선의견으로 바뀌었다. 강제성을 띤 수정의견이나 그렇지않은 개선의견이나 고쳐야한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다. 고치지 않으면 빨리검정에 통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3·1독립운동을『폭동』으로 표현하는것은 한일합방을 합리화하고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민족에대한 모독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3·1독립운동을 불법적인 [illegible] 과격한 反정부행동[illegible]는 폭동이라고쓰는 [illegible]가 온당치않다. 한민족이 그나라의 독립을위해 궐기하는것은 천부적인 권리다. 독립운동에 폭동이란 어휘를 쓴것은 語不成說이다.

—강제징용과 창씨개명 신사참배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었다는 기술에 대해…

▲한일합방자체가 총검아래서 이뤄진 불평등한조약이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를 史實에 입각해서 파악하지않고 조약과 절차등 형식에의해서만 해석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무단정치에 의해 강행됐던 사실들을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는 없다.

◇「戰前과같은 狀況」이라고 설명된 일본 朝日신문의 7월29일자 사회만평. 옛 지도자와같은 동상의 스즈끼 수상은 최근의 군비강화로 지식층들로부터 세찬 반발을 받고있는터에 교과서 史實歪曲사태까지 겹쳐 돌팔매를 얻어맞듯 곤경에 처해있다.

歷史 바로고치려는 한국에 敬意

古代史 韓·日學者 공동硏究가 바람직

—南京대학살사건은?

▲일본군이 南京을 점령할 당시 많은 중국軍·官·民을 폭행·약탈·살육한 것은 움직일 수없는 사실이다.

중국인희생자는 20만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같은 南京대학살사건을 혼란속에서 이뤄진 불상사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왜곡이다.

3·1독립운동이나 대륙침략등 역사적 사실을바로잡는것이 참다운 용기이며 거짓을 가르치는 것보다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오가와 문부상은 검정교과서 문제를『內政문제』라고 반발했고 마쓰노(松野)국토청장관은『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대한 소견은.

▲검정제도자체는 내정문제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사실추구는 내정문제이기 이전에 진실규명인것이다.

일본이 국제교육·연구센터를 통해 외국의 교과서에대한 잘못을 바로잡는것도 그때문인 것이다. 『내정문제』라고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것은 빨리 바로잡는것이 현명하다.

특히 역사는 그나라중심의 서술이 쓸데없는 우월감을 낳게하므로 상호관련된 이웃나라와의 교류사를 더욱 많이 서술해야 할것이다.

—문제된 왜곡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시간적으로 고칠수 있는가.

▲정부가 고치려고 마음먹는다면 고칠수 있다.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는 6월에 검정이 끝나고 7월에 전국에 전시,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선택한뒤 10월까지 인쇄에 들어간다. 고칠수 있는 시간은있다.

—그밖에 할 말은.

▲한국국민이 3·1독립운동을『폭동』이라고 왜곡하고 침략사를 합리화한데 대해 항의하고 있음은 당연하며 또한 경의를 표한다.

한·일양국의 진정한 우호협력은 과거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증진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관계사는 정치사 이외에 문화·경제사를 중심으로 더욱 폭넓게 기술되어야하며 이를위해 한·일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메아리

音과 色

金聖佑 <編輯委員>

우리나라 사람은 音에강하다. 한국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 웬만한 좌석에앉으면 으레 돌아가며 노래하기요 그가운데 못부르는 사람은 또 별로 없다. 세계를 통틀어도 이만한 偕口名唱 국민은 과히 많지않다. 우리나라 聲樂徒가 이탈리아에공부하러갔다가 카페의 보이가 부르는 노래에 기가 죽어 돌아왔더라는 이야기는 심상 우리나라와 버금할만큼 노래에 숙한 나라는 이탈리아정도뿐이라는 말이다.

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연주가를 배출한 나라를쳐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다 알고있는것같으면서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強點이다.

늘 듣는 사람은 의식을 않고 지내지만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들리느니 노래소리다. 연신 라디오나 카세트로 노래를 틀고다닌다. 자가용도 카세트 안달린 차가 없다. 외국에라도 나갔다가 돌아왔을때 새삼 그 노래소리가 잘들리는것은 이렇게 노래에극성인나라가별로 없기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音의 強國으로 만드는 素地가 아닌가싶다. 설령 대중가요라하더라도 音속에 묻혀 사는 日常이 우리의 音感을 기른다. 이생각을하면 버스에 앉아서도 신바람이 나서 노래소리에 덩달아 절로 흥얼거려진다. 늴리리,늴리리야.

그런데,이 노래를 가득가득 싣고다니는 버스,택시,자가용차들을 밖에서 보면 금방 흥이 깨져버린다. 우울해진다. 차체의 색깔 탓이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녹색인 택시의 색깔은 부자연스럽고 버스의빛깔은 칙칙 하다. 저항감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관·자가용차들의 검정색이다. 이것이 서울거리색깔의 주조를 이룬다. 하얀색차는 거의없다. 서울의 차량색깔이 너무 단조롭다는것을 지적한 한국일보의 지난6월10일자 사회면보도에 의하면 공장서 출고되는 자동차의 80%이상이 검정색이다.

검정색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흰색자동차가 거의없는나라 또한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정차가 많은것은 권위의식 때문이라고들 한다.

은회색자동차를 가지고있던 어떤친구는 번번이 교통순경에게 곤욕을 당하고 관청에 들어갈때마다 수위에게 저지를 당하고하여 결국 검정색차로 바꾸었더니 무사통과가 되더라고했다.

유럽에서 검정색 차는 런던의 택시를 제하면 장의차 정도뿐이다. 이 색깔의 차가 우리나라에 오면 권위의 상징이된다.

권위의 빛깔, 이것이 우리의 거리를 어둡게 만든다. 권위주의,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만든다.

자동차회사측에서는 하얀차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가 수요자의 選好탓도있지만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규칙 제18조4항2조에 따르면 赤色은 소방차와,白色은 병원차와 혼동이 되기때문에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방차도 급하고 병원차도 급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할 권리는 없다.

色의 해방 또한 급하다. 권위주의라는 병을 고치려면 色感의 개발에서 출발하는것이 손쉬울수 있다. 우리의色感이 자랑스러운 音感을 따를수만 있다면 사회는 한결 명랑해질것이다.

현재 미국의 내시빌에서는 국제에너지박람회가 열리고있다. 한국관에는 지붕에 태극기를 그리게 되었는데 주최측에서 태극기의 赤色과 靑色은 色相番號의 몇번에 해당하는 색이냐고 물어왔다. 한국측에서는 이것을 대답해줄 사람이 아무도없었다. 赤色, 靑色이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10가지의 赤色과靑色이 있다. 우리 태극기의 固有色이 그중 어느 赤色이며 어느 靑色인지를 모르고있었다. 말하자면 우리의둔한 色感은 태극기의 빛깔 하나도 정확히 가리지 못하고 지나온것이다.

對日抗議 계속擴散

北京 軍國主義 부활기도 非難

星港 戰時참상 감추려는 행패

홍콩 日의 성실·정직성에 의심

【東京 2日=聯合】 일본당국의 교과서 왜곡과 이에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한국을 비롯한 중공·대만·홍콩·싱가포르·북한등 동남아 여러국가와 일본국내의 거센 비판과 비난을 계속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일본신문들이 2일 우려했다.

이 신문들은 특히 중공이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文部相의 방중을 거부한데이어 2일에도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보도기관들을 동원, 대일비판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일·중공관계가 국교정상화이래 최악의 사태에 돌입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인민일보가 45년전 南京대학살사건당시의 사진5장을 게재하면서 일본문부성을『역사왜곡자』라고 공격했으며 TV들도 항일전쟁중 일본군의잔학상을 그린 극영화를 상영하는등 대일 비판을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도『중공당국이 대일우호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관철시킬 결의인것 같다』고 지적하고 교과서의 재개정이외에는 문제해결의 방법이없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본국내와 동남아등 여러지역에서 나타난 일본교과서 왜곡에 관한 비판과 비난은 다음과 같다.

▲北 京=中共軍기관지解放軍報는 이날 日本의 교과서왜곡을『군국주의의 부활기도』라고 비난하고 중공과 일본의 양국국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공동으로 저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특히 일본교과서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을『진출』이라고 개정한데 대해 이를『역사적사실의 왜곡』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은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도『진출』이란 용어 대신에『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콩=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과 관련,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항의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보이는 것은 일본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케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37년이 흐른 지금 舊怨은 청산되어야 할것이나 이것이 역사기록의 왜곡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역사왜곡시정요구를 묵살하면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중국계신문인 南洋商報는 일본정부가 교과서왜곡을 통해 일본군의 중국·한반도및 동남아시아침략을 은폐하려 한다면 타국들의 對日의심만 증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다음세대들에게 전사의 진실을 감추려하는것같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항의는『당연한일』이라고강조했다.

▲북 한=북한은 관영보도기관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침략에 관한 일본교과서개정은『역사적 사실에대한 수치스러운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臺灣=CNA통신은『역사적 사실이 교과서를 고친다고해서 지워질수는 없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만행과 잔학행위를 감추려하고 있으나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과 비인도적 행위는 일본침략군의 총검으로부터 살아남은 목격자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다음세대들이 같은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美國=뉴욕·타임즈는 중공이 일본의 교과서왜곡을 크게 노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오는10월로 예정된 스즈끼일본수상의 중공방문이 큰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중공은 일본이 1937년 南京사건을 왜곡하고도 이의 수정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한 일부 일본관리들의 발언에 흥분을 참지못하면서 일본이 지난날 침략의『그릇된 꿈』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것으로 믿고있다고 보도했다.

蘇,武器판매 美앞서

美國務省 10년實績 분석

【워싱턴2日=李文熙특파원】 소련이 지난10년간 제3국에 판매한 항공기,탱크,함정등 각종무기는 미국이 같은 기간내에 제공한 무기공급량에 비해 거의 배에 달한다고 2일상오 美국무성이 집계,발표했다.

제3국에 대한 美·蘇간의 재래식 무기공급현황을 집계 비교분석한 이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아시아, 아프리카, 中東, 南아메리카등지에 7만4천여점의 중요무기를 공급했으며 미국은 같은 기간 4만4천점을 공급한것으로 돼있다.

1972년부터 1981년 사이의 무기공급 현황을 집계한 이 발표는 美국무성 제임즈·버클리 副次官이 발표한것으로 제3국 공급무기 현황을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한국, 중공 등을포함한 東아시아가 소제3국 무기 공급의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공은 자급능력에있어 바르샤바조약국외에는 가장큰 무기생산 능력을 갖고있으며 ▲南·北韓과 臺灣이 역시 무기의 自給을 추구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아직 미국 라이선스에 의한 무기공급에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軍검문소앞 지나는 유엔감시단 유엔감시단을 태운 트럭이 2일 南베이루트의 이스라엘검문소앞에 정차해있다. 【南베이루트 (레바논) 2日AP=聯合】

팔撤收 美3個案 行先地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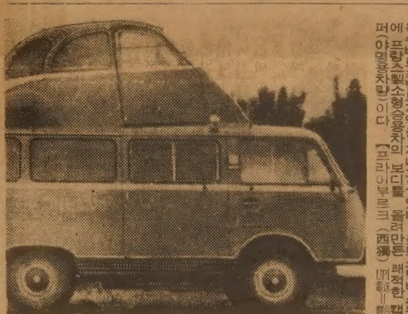
레바논首相 전달

【베이루트2日AP=聯合】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은 2일밤 팔레스타인철수를위한 미국의 3개항 계획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전달했다고 한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필립·하비브 美中東특사가 마련한 이계획이 ①PLO게릴라들의 행선지문제 ②西베이루트로부터의 철수방법 ③국제완충軍의西베이루트배치에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PLO게릴라들이 다른 아랍國들로 직접 이동하고 PLO게릴라 1진이 베이루트를 떠난후 국제완충軍을 베이루트에 배치하는방안을 제시하고있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이 계획은 PLO게릴라의 철수전에 국제완충軍의 개입을 요청하고있는 PLO·레바논좌익및 회교세력과 국제완충軍의 임무를 [illegible]의 무장해제에 국한시키려는 이스라엘측 사이의 타협안으로제시된것으로 알려졌다.



◇기묘한 2층自動車 기묘하게 생긴 2층자동차가 1일 서독슈바르츠발트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美製소형버스위에 프랑스製소형승용차의 보디를 올려만든 쾌적한 캠퍼(야영용자동차)이다. 【프라이부르크(西獨)UPI=聯合】

海外토픽

먼로 日記帳 찾아

★他殺증명위해 현상걸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립탐정은 세기의 육체파 여우 마릴린·먼로의 죽음이 타살이었음을 증명해줄수있는 그녀의 일기장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만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최근 제의. 【로스앤젤레스=UPI】

國校生들에 勞動

★中共, 學費마련 위해 권고

「모든 인민을 위한 무료교육」을 주장해왔던 中共은 학비를 벌기 위해 국민학교생들이 노동을 하도록 [illegible]. 『[illegible]』는 「[illegible]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노동-학습」계획에따라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함으로써 학비를 지불하고있다」고 전했다. 【北京=UPI】

被害 아시아人분노

【홍콩29日=聯合】 일본정부의 교과서수정은 일본이 아직도 호전적 국수주의와 침략주의에 집착하고 있지않나 하는 의심을 자아내고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홍콩·스탠더드가 29일 밝혔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최근까지만해도 역사는 종종 승자들에 의해 그들의 획득을 정당화하고 성취를 미화하도록 기록되는것으로 생각해왔으나 최근 패전국인 일본이 역사책을 수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사가들의 의견이 흔들리고있다고 말했다.

홍콩·스탠더드지는 이러한 일본의 교과서수정이 일본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인들의 가슴과 뇌리속에 전쟁과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새겨져있는만큼 더욱 분노를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 (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회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영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 (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구분	자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전
학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위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전학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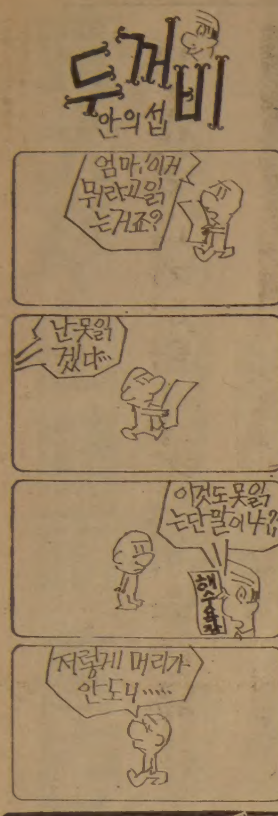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겁없는 10代…避暑客 공포

텐트村서 殺人·混宿·패싸움

海水浴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해수욕장 곳곳에서 10대들이편싸움을 벌여 사망자가생기는등 피서객들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다.

◆2일 밤11시께 강원도襄陽郡北面下光丁里 하조대해수욕장 텐트촌에서 캠핑중이던 김희용군(20·강원三陟郡道溪邑田頭2里)과 이재강군(20·학생·강원三陟郡道溪邑田頭里)이 신원을 알수없는 18세가량의 청소년2명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김군은 숨지고 이군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밤 달아난 범인들은 김군과 이군 일행인 여자5명이 캠핑중이던 텐트에 찾아와 『우리는 고3인데 너희들은 몇학년이냐』며 함께놀자고 희롱하는것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김군 등이 『시비를 걸지말고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범인중 한청소년이 갑자기 갖고있던 흉기로 두사람의 배를 차례로 찌르고 달아났다는것.【東草】

◆지난1일 하오2시께 강원도原城郡地正面艮峴3里섬강변 속칭 지방골유원지에서 캠핑을 하던 인천D상고3년 정모군(17·仁川市南區)등10명의 고교생들이 옆자리에서 여자친구5명과 함께 캠핑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金모군(18·경기도始興郡蘇萊邑)등 5명에게 여자친구를 인계한후 귀가할것을 요구, 이에불응하자 각목과 소주병 등을 이들 흉기를들고 다치는대로 때려 金군등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해 피서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또 같은날밤 9시30분께 艮峴유원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던 강달진군(20·서울銅雀區大方洞527)이 함께 캠핑온 친구 朴의구군(20·서울東大門區祭基2洞568)에게 노래도 못한다고 놀려대자 이에 격분한 朴군이 과도로 강군의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原州】

"너·나·우리" 亞·太잼버리大會

茂朱서 內外대원 萬여명參席

【茂朱=鄭樂鎬기자】한국보이스카우트 창립60주년을 기념하는 제6회 한국잼버리겸 제8회아시아 태평양지역 잼버리대회가 3일 전야제를시작으로 전북茂朱郡 德裕山국립공원 德裕臺야영장에서 열려10일까지 7일동안 계속된다.

이번대회에는 국내각지역 소년대원 6천명과 연장대대원2천6백명을 비롯, 세계23개국에서온 1천여명의 외국인대원등 모두 1만여명의 보이스카우트대원이 참가한다.

「너 나 우리」란 표어를 내건 이번대회는 3일하오7시 국내대원들만이 「나라위한 스카우트」 이란주제로 전야제를 갖고 4일 하오 3시 외국인대원이 참가, 金相浹국무총리가 참석한가운데 개영식을 가진뒤 7일동안 야영·암벽등반·잼버리박람회·탐험·동식물관찰활동등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전대원들이 참가, 통일기원제를 갖고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채택, 통일원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전달한다.

한편 대회본부는 외국인대원들에게 우리나라의 풍속과 민속을 소개하고 훈훈한민심을 맛보게하기위해 폐영후인 10~12일에 각시도별로 이들을 초청, 민박을 주선할 방침이다.

잼버리 治安만전을

全北警察局長

【全州】金士穆전북경찰국장은 3일 전북무주덕유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잼버리대회가 세계청소년 외교사절들의 진리탐구장이 될수있도록 치안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했다.【聯】

KAL機 위기일발

다란發 서울行

홍콩~臺灣상공 亂氣流에 곤두박질

승객百17명…22명 서울着入院

중동에서 취업자를 태우고 귀국하던 KAL 점보 여객기가 이상기류에휘말려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2일상오5시30분께 승객1백17명을 태우고 사우디아라비아 다란국제공항을출발, 방콕을 거쳐 金浦공항으로향하던 KAL836편 보잉747 점보여객기(機長 權泰根·42)가 홍콩과대만사이의 영공에서 이상기류에휘말려 기체가1분동안 심하게곤두박질하는 바람에 강태순양(21·서울江西區禾谷2洞342의88)등 승무원3명과 池동준씨등 승객19명등2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중 池씨등 승객4명과 姜양등 승무원 3명은 찰과상과 허리가 심하게 다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사고 여객기에 탔던 승객 공형배씨(27)에 의하면 여객기가 방콕을 출발한지 4시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여객기가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치는듯』 심하게 흔들렸는데 이같은 요동은 1분간 지속됐다는것.

한편 승무원들에 의하면 사고난 여객기에는 기상레이다가있어 순항예정지역의 기상이변을 미리 알아내 승객들에게 경고 한다는등 예비조치를 취할수있으나 이날은 레이다가 포착할수없는 기상이변인 터뷸런스(Turbulence)현상으로 속수무책이었다는것.

항공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같은 터뷸런스현상은 맑은 날씨에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이번처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매지않았거나 깊은 잠을 자는등 자세를 흐트러뜨린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533-2361

釜山文化院사건 9일 宣告

"犧牲 학생위해 기도…贖罪" 文富軾

最後진술

"어린학생들 관대한 處罰을" 崔신부

【釜山=林永茂기자】미문화원사건에대한 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 金鉉奬피고인은『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주장하고『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온것이 법정에 서는 결과를 빚게된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文富軾피고인은『이사건의 주범으로서 희생자가족들을위해 기도하고있으며 경솔하고 어리석음에대해 처벌을 달게받고 평생을두고 속죄하고싶다』고 말하고『신학생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인것으로 생각한다』고진술한뒤 방화폭력은 민족적자각을 이루기위한것이지 폭력적방법으로 할생각은 아니었다。나는 폭력주의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崔基植신부는『내행위에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거나 후회한적은 없다。법을 어겼다해서 벌을 받게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나 분노할 생각이없다。우리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하기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당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반성해 봐야한다』고 진술한뒤『어린 학생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일상오10시에 열릴 예정이다.

射倖心…껌·氷菓

景品券 끼워판 롯데·해태등 3업체立件

빙과류 성수기를맞아 유명메이커들이 당첨률이 낮은 경품권을 끼워파는등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永登浦경찰서는 3일 해태제과(대표 朴健培)·롯데제과(대표 閔齊榮·47)·롯데삼강(대표 金奎式·48)등 3개업체를 복권발행및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채 경품권을 발행해왔는데 롯데제과의 경우 지난6월중순부터 『티나콘』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그려져있는 야구게임그림을 관제엽서에 오려붙여보내게 한뒤 응모자중 2천2백명의 어린이들에게 싼안경·야구용품등을 주었다.

또 해태제과는 지난달 초 신문에 치클껌 포장지에 꽃그림이 몇개있을까하는 퀴즈문제 광고를내 당첨된 어린이 6백명에게 야구전자팔목시계를 주었고 롯데삼강도스카시바를 팔면서 광고를 내 3천명에게 헤드폰·라디오를 경품으로 주었다는것.

복권발행및 현상 기타단속법을 위반했을경우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등에 처하게 되어있다.

聖女테레사가 한국에 뿌린씨앗

修女5人의 사랑

우리 필요로 하는곳 언제라도 갑니다

불행한이의 보금자리「사랑의 宣敎會」

◇맹인마을에선「친절한 인도아주머니」로, 양로원에선「검은피부의 딸」로 통하는 인도인 수녀가 노인들과 어울려 한낮을 보내고 있다.

希望의 燈…벌써 1년

할머니·盲人자녀돌보며 淪落女친구

印·比·방글라데시出身 "세계는 하나"

살아있는 聖女 마더 테레사의 사랑이 우리나라에도 뿌리를 내리고있다.

聖女의 사랑의 사절인 루티시아등 인도 방글라데시출신 다섯수녀가 그녀를 대신해서 이땅의 불행한자를위해 「희망의 등불」이 돼주기 시작한지 이제만1년이 된것.

수녀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겐 희망을, 배고픈 자에겐 빵을, 행려병자에겐 잠자리와 치료를 베풀어주는 동반자로서 한국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다.

서울 龍山區元曉路4街 천주교 용산성당밑 양지녘에 허스름한 2층벽돌건물。간판도 없고 언뜻보면 사람이 살지않는듯 하다.

그러나 철문을 밀고들어서면 방문객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나무그늘아래 깨끗하게 차려입고 옹기종기 앉은 노인들과 아이들。그 사이를 하얀 수녀복의 이방인 수녀들이 헤집고다닌다.

이 2층벽돌건물은 테레사수녀가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세운 사랑의 선교회 한국지부。수녀들은 테레사수녀의 사랑의 사절로 루티시아등 3명은인도인,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출신이 각각1명씩이다.

聖女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씨앗이 한국에 뿌려진 것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테레사수녀는『한국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金壽煥추기경의 요청을 받았다。그때 테레사수녀는 자신에겐 금도·은도없지만 수녀들은 보낼수있다고 약속한후 돌아갔다.

루티시아등 5명의 수녀가 사랑의 사절로서 한국을 찾은것은 꼭 1년전인 8월1일。열대지방 출신인 다섯수녀의 한국방문은 낯설기만 했지만 그만큼 사랑에 충만한 것이기도 했다.

언어·기후 어느것 하나 어렵지 않은것이 없었다。다행히 金추기경의 주선으로 현재의 2층 벽돌건물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어려움의 장벽을 넘었다。그렇지만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도 괴로왔다。열대지방 출신들에겐 서울의 추위는 가혹하기까지했다。그러나 새벽4시면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지냈다.

집안에서도 추웠던 자신들을 생각,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모아들였다。이것만으로도 聖女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은 배고프기만 했다.

이번에는 길거리로 뛰쳐나갔다。상오8시30분이면 어김없이 陽■맹인촌으로 나가 맹인을 부모로가진어린이를 돌보았다。기저귀도 빨고 목욕도시켰다。이때문에 맹인들은 그들을 「인도 아주머니」로통한다。하오에는 龍山역부근의 윤락여성을찾아 친구가 되었다。이젠 사랑의 선교회는 개나리회원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안식처다.

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차를타지않는 이들의 헌신은 사회의 ■이해에 가끔 주춤거리기도했다。지난5월 한 할머니가 몹쓸병에 걸렸다。여러병원을 찾았으나 인술의 사랑을 베푸는곳은 없었다。다행히 龍山구청의 주선으로 다급함을 면했지만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남아있다.

사랑의 선교회의 도움으로 별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오사근할머니(63)는『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요즘은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朴영순할머니(86)도『이제야 노후가 외롭지 않다』며 기쁨을 섞어가며 수녀들의 칭찬을 늘어놓는다。35세때 홀몸이된 朴할머니도 길에서 우연히 수녀들을 만나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게 됐다.

『할머니 허리가 어떠세요』등 수녀들이 한국말을 곧잘한다는 朴할머니는 피부색만 다르지 그녀들이 딸만 같다고 한다.

「사랑」과 「희망」으로 충만한 사랑의 집도 뜻을 펴지 1년만에 큰 시련에 봉착했다。사랑의 선교회가 원효국민학교신축관계로헐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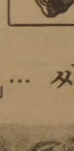
현재 백방으로 장소를물색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비워주어야 할 시한인 8월말이 눈앞에 닥쳐 온데다 수많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쉽게 찾을것 같지가 않다.

루티시아수녀는『테레사수녀가 건축비를 마련해주었으나 마땅한 땅이 없고 땅이 있더라도 집을 지을 때까지 노인들과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처럼 보금자리를 찾은 할머니들이 요즘 잠못이루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朴珍列기자】

元曉국교 新築에밀려 새집 마련해야

"내 일터는 하늘"

高層빌딩 유리창청소 鄭大柱씨



지름6㎜의 로프하나에 몸을 의지한채 까마득한 고층빌딩에매달려 유리창을 닦는 鄭大柱씨(33·사진·보흥실업소속외부유리청소기사)에겐 여름은 별난데가 있다。남들보다 갑절의 더위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싸늘함을 맛봐야하기때문。

로프에 의지한채 빌딩의 외벽에 붙어 있는동안 鄭씨는 더운땀과 식은땀으로 옷이 흥건히 젖는다。빌딩자체가 열기에 단데다 등으로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앞으로는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을 각각 받아야한다。창밖으로 뿜어대는 에어컨의 더운바람은 숨까지 막히게한다。그러면서도 鄭씨는 순간순간 찬바람이 등골을 스침을 느낀다。자리를 이동할때나 로프가 출렁거릴때마다 언뜻언뜻 시야에 들어오는 까마득한 땅바닥은「싸늘한 공포」와함께 더위를 뺏어간다.

올해로 빌딩유리창닦기 꼭10년째인 鄭씨는 서울시내에서 첫손꼽히는 베테랑。『산을 타본적이 있느냐구요。로프한번 잡아본적이 없읍니다』군에서 제대한뒤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일을 한번 해보자』는 친구를 따라나선 것이 10년을 묶였다。이젠 처음고층빌딩올랐을때 느꼈던 공포감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生死의 아슬아슬한 긴장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위험한 직업이라 집에도 알리지않아 아내는 아직도 鄭씨가 고층빌딩의 유리창을 닦는지 모르고있다.

伏더위에 「鬪暑」… 싸늘한 恐怖도

17층짜리 현대빌딩의 유리창을닦고 땅에 내려선 鄭씨는 베테랑답지않게 안도의 숨을 내쉰다。그동안 3명의 동료가 비명에 간것을 목도한 鄭씨에겐 그한숨이 버릇처럼 돼있다.

위험한 곡예는 하루8시간씩 계속된다。이 8시간동안 鄭씨는 더위와 공포외에도 지상과 격리된 외로움과도 싸워야한다。개미처럼 움직이는 지상의 사람들과 창너머 사무실안의 풍경을 보노라면 자신은 이세상과 멀찍이 떨어져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위험한 직업에 비해 鄭씨의 월급은 30만원선。이것도 빌딩유리창청소원으로는 최고액수다。4식구가 빠듯이 살아갈 월급을 받으면서도 鄭씨는 이직업을 바꾸는 것을 포기했다。『어느 방면이나 1인자가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위험하지만 하늘에 매달려 지내는 鄭씨에겐 복더위를 잊게하는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다。【方晙俊기자】

日의 歷史왜곡

馬山、糾彈대회

【馬山】경남馬山시교역자협의회회원 90여명은 2일밤9시 馬山市驛山洞 문총교회에서 일본역사왜곡규탄대회를 가졌다.【聯】

老人회원 5백여명

日本망상 糾彈대회

강산재조(再造)동지회(회장 沈相完·85)노인회원 5백여명은 3일하오2시 서울鍾路區鍾路2街 파고다공원에서 「일본 망상 규탄대회」를 벌였다.

印紙稅 탈세代理店

馬山서 百여건적발

【馬山】소비자들에게 할부판매할때 계약서에 반드시 첩부해야하는 수입인지를 빠뜨려 인지세를 탈세한 전자제품 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東馬山세무서는 3일 鎭海市忠武洞 C전자대리점등 44개대리점이 모두 4백97건이나 수입인지를 첩부하지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4백38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고 마산세무서도 1백10건을 적발, 2백30여만원의 벌과금을 물렸다.【聯】

5行뉴스

◆洛山서 大學生2명 溺死

【東草】2일 상오11시30분쯤 강원襄陽郡襄陽邑澄山里 洛山해수욕장 C지구에서 수영을하던서울대심리학과2학년 강명수군(22)과 신원을 알수없는 20대청년1명이 3m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聯】

◆洛東江서도 학생들失踪

【昌原】2일하오 5시께 경남 義昌郡北面新村里新村부락앞 낙동강하류에서 하기휴양온 釜山市南區남천교회 학생회회원 28명중 조일남군(17·釜山高1년)과 구자성군(22·釜山高神大2년)등 2명이 멱을감다 실종됐다.【聯】

어린이 誘拐협박 電話건 10代拘束

속보=서울江南경찰서는3일 서울江南區驛院洞일대 아파트 어린이유괴협박전화사건의 범인으로 李모군(17·H高야간부 1년중퇴)을 검거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國道·産業도로에 速度규제板 정비

치안본부는 3일 4차선국도및 산업도로상에 필요이상 무원칙하게 설치된 속도규제표지를 대폭 정비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치안본부가 새로마련한 속도규제표시설치기준을 보면 ▲국도시발점과 평면교차로및 도로합류지점에는 시속60km이하의 속도규제표지는 없애도록하고 최고속도표지만 설치하며▲곡선부 중간구간이나 도로여건을 고려, 위험하거나 주의를 필요로 하는곳에는 「위험」 또는「천천히」표지로 바꾸고 주의및 예고표지를 증설하여 이용자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준법운행토록하며▲다른 지방에도 이같은 기준에 준하여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는것이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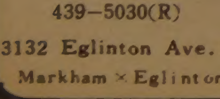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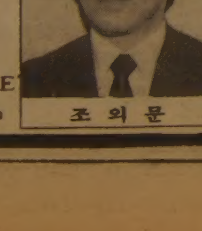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FALLIS U-SAVE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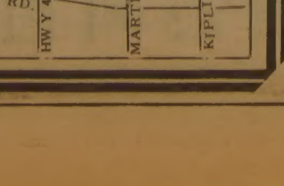
◇◇ 스페샬 ◇◇

⊙	Pepsi～Cola(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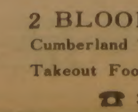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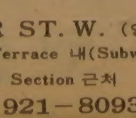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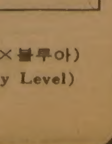


HOSANNA ART AND FRAMES

특별할인기간 : 7월말까지
OPENING SALE ☞ 20% OFF

토론토 한복판(영×블루아)에 새로 그림가게를 OPEN했읍니다.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호 올림

＊사진액자, 서양화, 동양화 액자주문.
＊자수 스트레취, 유리등 전문.
＊프린팅 그림.
＊졸업증, 각종자격증, 액자전문.

2 BLOOR ST. W. (영×블루아)
Cumberland Terrace 내(Subway Level)
Takeout Food Section 근처
☎ : 921—8093

釜山高、작년빚 갚았다

全州高에 逆轉콜드게임勝 8-1

黃允泰·田龍雨 홈런

金鍾奭·金昌基계투…타선 봉쇄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영광의 초록 鳳凰大旗를 향한 명문 강호들의 진군이 우렁차다。3일 1만여 팬들의 열기띤 성원속에 서울운동장에서 펼쳐진 제12회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3일째 1회전 경기에서 釜山高는 黃允泰 田龍雨가 대회 4、5호 홈런을 날리며 全州高를 8-1、7회콜드게임으로 제압、지난해 3회전에서 당한 콜드게임패(0-8)를 설욕했다。

釜山高는 좌완에이스 金宗奭과 우완 金昌基의 계투로 첫고비를 넘기고 대통령배 우승에 이어 금년시즌 2관왕을 노리고있다。世光高는 1년생 金壽珏의 호투에 힘입어 仁川體高에 7-0으로 대승했다。참단 2년째의 聖光高는 9안타와 기록적인 9개의 도루로 범실이 잦은 五山高에 8-0、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聖光도 五山에 8-0

釜山－全州

지난해대회 3회전、발목을 다쳐 덕아웃에 앉았던 좌완에이스 金宗奭은 고개를 들지못했었다。『釜山의전통은 어디로 갔는가。全州高에 콜드게임패라니…』극성동문들의 원성이 귀를 찢었다。『내년에 그빚을 갚아주마』

3일 1회전에서 다시맞선 全州는 여전히 만만치않았다。全州는 2회말 선두4번 金滿后가 중월2루타로 포문을열고 金宗奭의 견제악송구로 3루에 진출、5번金炳努의 라이트희생플라이로 선제1점을 올렸다。

내야안타로나간 6번 辛完根이 7번 李振鎬의 헛스윙으로 불운하게도 견제에걸려 추가득점을 놓쳤다。마운드에 선 金宗奭의 머리속에 또다시 먹구름이 피어올랐다。

全州의 치고달리기 작전을 막아낸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3회초 1死후 뜻밖에도 8번 尹斗寬이 全州선발 辛完根으로부터 첫안타인 중월3루타를 빼앗았다。9번 玄仍璟가 적시에 중전 동점타를 때렸다。釜山 덕아웃에는 화색이 돌았다。1번 黃允泰가 중전안타 2번 柳東孝가 포볼로나가 1死만루를 이루자 3번 尹熙政은 우전역전 2타점 결승타를 때렸다。4번 金宗奭도 우월 2루타로 타점을 올려 5-1로 대세를 결정지었다。승리의 무드를 타고 4회초 2死후에는 1번 黃允泰가 좌월 2점홈런을、6회초에는 선두6번 田龍雨가 좌중솔로홈런을날려 全州투수진을 다운시켰다。

> 釜山高 1번 黃允泰
>
> "작년敗北 잊을수 없었죠"

『자신은 있었지만 지난대회 콜드게임패의 기억을 잊을수가 없었어요』釜山高1번 黃允泰는 1-0으로 뒤지던 3회초에 동점을 이루는 안타에 이어 4회초 다시 좌월2점 홈런을때려 釜山高를 물리친주역이 됐다。

黃은 지난봄 대통령배대회서도 최다안타상을 수상한강타자。

黃임술씨의 2남3녀중 차남으로 東亞大진학 예정。프로야구 MBC靑龍의 白仁天선수를 좋아한다。172cm·65kg。

봉황스타

◇제3일 1회전

聖光高	401	300	0	—	8
五山高	000	000	0	—	0

<7회콜드게임>

▲聖光투수=崔圭…林榮國(4회) 포수=崔在涉 ▲五山투수=李燦相 포수=朴尙浩 ▲안타=聖光9－5五山

世光高	000	021	031	—	7
仁川體高	000	000	000	—	0

▲世光투수=金壽珏 崔東昌(6회) 포수=崔東昌 ▲仁川體투수=張文伯 포수=李想鐵 ▲안타=世光11－5仁川

釜山高	005	201	0	—	8
全州高	010	000	0	—	1

<7회콜드게임>

▲釜山투수=金宗奭(1·5회) 金昌基(5회) 포수=辛完根 ▲全州투수=辛完根 李熙成(6회) 포수=金炳努 ▲안타=釜山11－4全州 ▲홈런=黃允泰(4회·2점) 田龍雨(6회·이상釜山)

상승세 世光高

仁川體 셧아웃 7-0

世光－仁川體

욱일승천의 기세로 世光이 고교야구정상을 넘보고있다。대통령배 8강·대봉기준우승·봉황대기 첫 우승을 향한 대로를열듯、世光은 朴熙鍾·宋泳宇등 주전투수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1년생 金壽珏과 투·포수겸장 崔東昌의 계투로 仁川體高를 7-0으로 셧아웃 시켰다。

金壽珏은 5회까지 仁川體 19타자를 맞아 2안타、2포볼、6삼진으로 선방 2-0의 리드를 잡은채 마운드를 崔東昌에게 넘겼다。崔역시 남은 4회동안 3안타、2삼진으로 仁川타선을 완봉。

世光도 4회까지 仁川體투수 張文伯의 역투에 눌려 매회진루하면서도 점수를 얻지못했다。

5회초 1死후 1번 盧載龍이 중전안타에 이어 2·3루를 연속 스틸、결정적인 득점찬스를 만들었다。2死후에 나온 3번 姜熙奭이 통쾌한 좌월2루타로 선제타점을 올리고 3盜에 성공、포수견제악송구를틈타 2점째를올렸다。

5회를 고비로 世光타봉은 둑터진 봇물처럼 쏟아졌다。

1번 盧載龍은 8회·3타점 2루타를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3번 姜熙奭은 3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3개의 도루를 기록했다。

◇봉황기출전팀숙소

강 릉 고	복지회관 ㊸0678
경 남 상	용궁여관 ㉖2034
경 북 고	왕도여관 ㉖8136
경 주 고	용궁여관 ㉖2034
공 주 고	삼전여관 ㉖6386
광 주 상	화성여관 ㉖9584
광 주 일	화조여관 ㉖4620
군 산 상	태 화 장 ㉖8944
남 대 전	삼오여관 ㉖7878
대 구 상	신도여관 ㉖9136
성 광 고	미진여관 ㉖1617
대 전 고	금 용 장 ㉖8191
마 산 고	양미여관 ㉖4708
마 산 상	미진여관 ㉖1617
부 산 고	초원여관 ㉖4557
부 산 공	신도여관 ㉖0256
부 산 상	계룡여관 ㉖9575
세 광 고	미진여관 ㉖1617
영 동 상	화조여관 ㉖4620
원 주 고	복지회관 ㊸0678
재일동포	올림피아 ㉗5121
전 주 고	세일여관 ㊽4949
북 일 고	계룡여관 ㉖9595
청 주 고	장미여관 ㉖5233
포 철 공	반도유스 ㊽3111

올림픽 기념주화 來16일 예약접수

올림픽유치기념주화의 예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한사람당 푸르프세트 3세트씩、보통주화는 종류별로 10개씩을 팔기로하고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통해 예약 접수키로했다。

9월30일 예약순서에 따라 발행될 기념주화는 2만원권 은화가 20만개、1만원권 은화가 30만개、1천원권 백동화 2백만개가 발행될예정이며 2만원권은 3만원에、1만원권은 1만5천원、1천원권은 1천2백원、유광푸르프세트는 10만원、무광푸르프세트는 8만원에 각각팔리게 된다。

4백m混泳 세계新

東獨의 슈나이더孃

【과야킬(에콰도르) 1日UPI=聯】東獨의 페트라·슈나이더는 1일 과야킬에서 벌어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4백m 개인혼영에서 4분36초10으로 자신의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슈나이더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서 이날의 기록보다 0.9초가 뒤진 4분36초29로 세계기록을 세운바 있다。

日여대생 도버橫斷

【포크스톤(영국) 5日=聯】오누끼·메루꼬(22)란 일본의 한 여대생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영국해협을 헤엄쳐 건너는데 성공、이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한국 1승1패

리틀野球、日꺾어

【大阪2日=聯】한국은 2일 이곳서 벌어진 리틀야구 극동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日本을 2-1로 물리쳐 1승1패를 기록했다。

中共、후나선수 送還요구

外交部 "對美문화교류 惡影響" 경고

지난달 25일 페盃 테니스참가중 亡命

◇후나선수

【北京3日UPI=聯】中共은 지난주 미국에서 정치적망명을 요청한 中共의 여자테니스선수인 후·나양(19)을 中共으로 송환하지않으면 美·中共간의 문화교류가 시련을 겪을것이라고 경고했다。

中共 외교부대변인의 이같은 강경한 송환요구는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로 양국관계가 전환점을 맞고있는때에 나온 것으로 후·나양의 미국망명에 中共당국이 크게 당황하고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후·나선수는 미국테니스협회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페더레이션컵 테니스대회에 참가도중 지난달25일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했었다。

中共외교부대변인은 후·나선수를 초청한것이 미국테니스협회인만큼 『미국측은 中共선수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후·나선수를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건은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나쁜영향을 끼칠것』이라고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사건이 외국과의 스포츠교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이라고 한 中共체육연맹의 앞서 비공식입장을 뒤엎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민당국관리들은 후·나선수가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녀는 中共으로 송환될경우 신상에 위협을 받게될 것임을 증명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나선수의 망명은 지난 6월 中共의 남자무용수가 미국에서 국제발레경연대회 참가도중 망명을 요청한데이어 두번째 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메르데카 蹴球출전 한국代表 오늘壯途

제26회 메르데카배 국제축구대회(5~18일·콸라룸푸르)에 출전할 한국대표팀이 4일낮 장도에 오른다。한국은 세네갈(6일)、인도네시아(8일)、말레이지아(10일)、파키스탄(12일)등과 예선경기를 벌인다。

◇선수단 ▲단장=劉志馨 ▲코치=趙潤玉 ▲트레이너=盧興燮 ▲국제심판=車敬福 외=徐祥圭 ▲선수=崔仁榮 姜昌根(이상GK) 金漢奉 李連浩 鄭泰榮 權五孫 全鍾善(이상FB)、金龍海 柳東春 安星烈 李聖吉 李康錫 秋鍾浩(이상HB)、白承泰 邊一雨 金鏞世 洪錫琨 金鍾煥(이상FW)

양달 ⑮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80>

인재에 대한 미련때문도 아니고 더군다나 환락에의 충동때문도 아니었다。그곳엔 적어도 자유스러움이 있었다。찰나적이고 환상적인 자유일망정。

인재의 애인이었을 적에 수지가 구한 자유는 불확실한 앞날로부터의 자유였다。그녀는 인재를 좋아했지만 인재로부터 듣는 그의 식구와 친척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며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가난이 주동력이 되지 않은게 없었으며、약속할수있는 건 앞날의 고생이 고작일만큼 그는 담담하게 정직했다。

왜날 같은 거 생각하기도 싫어。될대로되라 더 될까? 이렇게 낙관과 자포자기가 뒤죽박죽된 편안한 배짱으로 가끔 가서 즐기던 값싼 나이트클럽은 그날도 초만원이었다。

젊다기보다는 놓아기른 망아지모양 막돼먹은 애송이들이 오늘만 살고는 다시는 안 살 것처럼 기를 쓰고 살아 움직임을 발산하는 광경에 기욱은 질린듯 주춤거리며 뭐라고 그랬지만 수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악기(樂器)역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듯이 연주가 아니라 난타를 당하고있었다。거기에 젊은이들이 지르는 기성이 합쳐 귀가 멍멍할뿐 조리가 없는 말을 알아듣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소위 조리가 있는 말은 일체히 비웃는 것 같은 그곳 소음에 묘한 친화감을 느꼈다。

그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국외자인채로 놓아두지 못하는 게 그곳의 마력이었다。함부로 넘치는 맥주거품과 귀청을 찢는 생음악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에 먼저 점잖은 체면이 무너진 건 오히려 기욱이었다。

수지도 그를 따라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자유로와져야돼。자유로와질수 있어。넌 마침내 자유로와졌어。

그녀는 몸을 흔들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었다。그녀는 지금 앞날의 안정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길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앞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처럼 그 일은 쉽지않았다。안정이란 요지부동 못박힌 상태였다。그녀는 자신이 아까 즉흥적으로 설계한 강변의 주택이 이미 움직일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자신의 운명 역시 그 주택속의 비품의 하나로 못박힌 것처럼 옴쭉달싹 할수 없는 기분이었다。

맹렬히 몸을 흔들수록 옴쭉달싹 할수없는 기분은 절실했고、그런 구속감이 절실할수록 한층 미친듯이 몸을 흔들었다。그녀는 자신과의 이런 싸움질에 골몰해서 기욱에 대해선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기욱을 다시 알아보기는 조명이 사이키로 바뀌고나서였다。몸짓과 표정이 토막나면서 새롭게 떠오른 기욱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치 못된 꿈을 꾸고있는 것처럼 느꼈다。토막나서 유연성을 잃은대신 오히려 강조된 그의 몸짓과 표정은 그만큼 악몽(惡夢)스러웠다。밑도 끝도 없이 그는 흰 이를 드러내고 웃기도 하고、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가면처럼 공허하게 경직돼 있기도 했다。그는 어떤 고도로 공룡적으로 섬뜩하도록 냉혹해 보였다。

사이키 조명속에서 사람을 새삼스럽게 바라본게 처음도 아니었다。그녀는 오히려 친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좋아했었다。특히 인재의 토막난 표정과 몸짓은 어린애처럼 천진하고 따뜻했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이런 악몽스러움과 동화스러운 특질의 차이에 슬픔과 혼란을 느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읍니까?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토론토 거주 3만 한인교포의 「사랑방」 한인회관이 모국정부의 20만불로 전액지원으로써 마련된지 이제 만 5년이 되었읍니다.

그간의 우리 교포 개개인과 교포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의 결과로써 오늘날 어느 소수민족 그룹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민족그룹으로써 이 땅위에 당당히 부각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택한 카나다 사회에서 성숙과 안정을 굳혀가는 교민사회의 새로운 면모에 부응할 수 있는 한인문화의 전당으로, 이 사회에서 더욱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터전으로써의 한인회관을 우리의 힘으로 건립코자 뜻을 세우고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짧지않은 한인이민사에서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되는 새 한인회관 마련이라는 우리가 이민선구자로써 긍지와 자부를 내세울수 있으며 후손 대대로 물려줄수 있는 값진 유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나서지 않으시겠읍니까?

토론토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회

고문 : 이규현 주 카나다대사
이상훈 주 토론토 총영사
안병한 교역자협의회장
고종옥 한인천주교회 신부
구연원 장로연합회 회장
진필식 전 주 카나다대사
황대연 전 한인회 이사장
조영호 노년회 회장
한상훈 한인신용조합 이사장, 전 한인회관건립위원장
최승낙 외환은행장

모금위원장 : 조한철
부 위 원 장 : 한덕창
부 위 원 장 : 장영대
총 무 : 윤영일
재 정 : 강공선
기 획 : 최복기
홍 보 : 임윤식
모 금 : 이승열

자문위원

윤여화	김학량	이용준	엄주면	정정홍	전택균
남상현	오세희	조성준	구상회	전승운	천중환
차은자	신복균	이훈모	홍중표	허규상	김오석
김회학	강신봉	이경대	유 인	김규석	송완일
허규갑	강찬영	이상호	김부호	강우석	문관식
오원균	김용섭	장석환	문영환	이헌종	이근우
곽석동	조정대	이봉수	주수식	양용진	송대헌
조덕남	함태호	최호영	김정치	최동주	김병진
유영갑	김정택	김창범	조기연	함석연	서준경
김현송	이인덕	박경락	김예정	장필규	황순일
전경수	윤태순	이영선	김창섭	고정배	원영신
이병현	구재호	박찬웅	배찬규	김 구	심용웅
정인기	배형도	윤호영	방익석	김정운	함의현
이동일	김홍량	홍사겸	이성현	임철원	이종경
함병섭	김명자	배이삼	서동준	서기진	이영일
박애숙	서병주	이종옥	이정범	정기태	이명래
한성택	김중옥	김기태	서정길	윤복림	김상철
최양옥	박덕용	안병원	김순창	강화연	박충도
정유화	이인용	강신학	윤석조	정용송	박병원
신동운	박수영	김종두	이웅식	신중화	성원경
김향순	박전우	조지섭	한일환	이형인	이한구
김봉균	김병권	황 훈	곽정열	이영현	오운섭
장순채	성용창	김용규	이영목	곽석용	이광승
장인철	유형승	유지원	하대규	고광남	윤여경
정용대	정태영	장추신	강학수	이광한	오효원
이기천	이영철	김희삼	김석진	이정수	최태권
길창세	유영린	장현수	김종조	배용빈	이전길
조규혁	이창복	김만구	박재훈	김시성	김현모
공재용	유복영	정근영	송의섭	김신우	이인덕
정창헌	성낙윤	강준남	허영식	이율윤	곽창수
전윤식	문가자	김 효	김진현	박종수	박승나
주재철	황용현	김장환	정호진	이영규	서명식
홍진표	최영호	정철기	변의섭	박재선	함필용
원영수	정번헌	김인환	이 억	김성택	윤호섭
이광옥	김명준	김연수	임동순	원재훈	윤종대
서준봉	최등영	박태식	김완수	이요환	김광석

한인회관 확장이전기금 납부자명단

(7월1일~7월29일)

장영채	$300	원영신	$100
이영규	$50	조기연	$100
김정운	$300	이창복	$2,000
오기환	$100	원장호	$500
홍승해	$100	황대연	$3,000
심태식	$100	박수영	$2,000
이훈모	$500	이정수	$500
김 효	$100	이세용	$20
박대현	$100	장가진	$100
함병섭	$1,000	김성규	$100
이영목	$100	함덕상	$100
전윤식	$200	이환규	$50
이병권	$500	정상열	$50
이인덕	$100	임철원	$500
한천석	$100	정홍섭	$100
임수철	$100	신중화	$5,000
함의현	$1,000	박찬도	$200
이기훈	$100	진필식	$1,000
김웅일	$500	문인식	$500
나옥녀	$300	성낙윤	$1,000
강공선	$500	김정치	$100
신영식	$100	석영창	$50
고순복	$500	김재은	$100
이대환	$500	권태홍	$100
장추신	$500	배기웅	$100
박인순	$2,000	배석구	$100
변의섭	$200	김학종	$100
장순채	$1,000	윤영일	$300
이영현	$1000	임윤식	$200
성용창	$500	남수명	$100
전택균	$300		
조한철	$500		
조영호	$200		
소 계	$13,450(33명)	소 계	$18,170(30명)

July 29/82 현재

⊙누 계 : $31,620

토론토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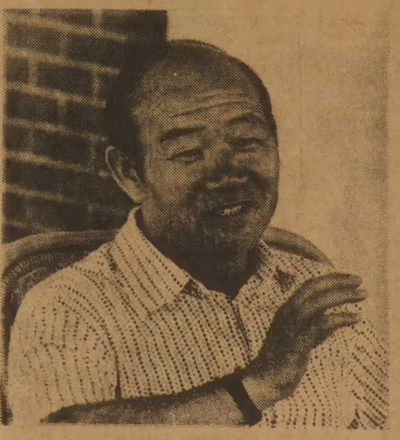
太平洋 頂上회담 門戶개방

모든沿岸國 참여 定期개최
覇權반대 政治블록化 止揚
全대통령 鎭海회견 5개項의 기본原則제시

【鎭海=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5월 프레이저 濠洲수상에게 제의한 太平洋頂上 年例회담에 대해 域內 모든국가에 門戶를 개방하고 상호 主權·獨立의 존중과 互惠 평등관계의 유지, 非政治化, 多方面의 協力교류증진등 5개項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全대통령은 지난달 31일 鎭海휴양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國政전반에 걸친 자신의 구상과 소신을 천명하면서 자신의 太平洋頂上 年例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과 원칙을 이같이 처음으로 밝혔다.

全대통령은 5개원칙으로 ▲太平洋沿岸國의 頂上이 정기적으로 會合, 공동관심사와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협의체에는 域內의 모든국가가 참여하도록 원칙적으로 門戶를 개방하며 ▲域內국가간의 관계는 主權과 獨立의 존중, 互惠平等, 內政不干涉을 기본으로하고 특정국가의 覇權을 인정치 않으며 政治化 블록化를 지양하고 ▲沿岸國이 보유하고있는 潛在力의 개발을 비롯, 域內의 무역증대, 경제기술협력의 강화, 人力개발, 교통통신망확충, 교육 문화교류의 증대등이 협의체의 주요관심사가되며 ▲域內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및 開途國상호간의 협력을 증대 深化시킴으로써 南北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모범을 보일수 있을것이라는전망을 제시했다.

全대통령은 太平洋頂上회담의 실현은 域內제국의 찬성이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鎭海휴양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國政전반에 걸쳐 소신을 밝히고있는 全斗煥 대통령。【鎭海=崔東完기자찍음】

7·3조치로 국민財産權 침해없다

『작년 아세안5개국 巡訪때 각국의 頂上과 맺은 우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域內各國의 지지와 호응을 받기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제3世界나 공산권국가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를 떠나 通商과 經協을 증진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나누어주는 開放·協力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최근의 北傀동향에 대해, 北韓은 權力世襲기도에 대한 對內外的인 반발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北韓전체에 걸잡을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波及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北韓은 돌파구를 찾기위해 최근 對南관계工作기구를 대폭 강화하는등 強硬路線으로 전환, 본격적인 對南武力도발의 모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漸增하고 있다고본다고 분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軍은 어떠한 敵의공격에도 首都圈을 위주로하여 현전선을 고수하여 초기에 敵을 격퇴할 應戰태세를 확립하고있고 非正規戰에대한 태세도 물샐틈없이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7·3조치에 대해 『이 조치에는 私有재산과 일체의 旣得權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遡及적용은 없으며 앞으로 정부는 實名化된 개인의 私有재산에 대해 일체의 稅務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항간에서는 不動産등의 實物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투기는 이 조치와 관계없이 根絶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金利및 法人稅率의 인하등을 내용으로하는 「6·28」조치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7·3」, 「6·28」조치등 새제도의 도입에 있어 정부의 立案이나 국회의 立法과정에서 각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補完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李哲熙·張玲子사건에 언급, 『그사건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녀온 고질적인 금융풍토의 허점을 교묘하게 悪用한 사기사건』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어떠한 非違사건이 있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掩蔽하지않고 모든국민에게 공개하여 떳떳이 처리함으로써 舊時代의 非理가 결코 再發되지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全대통령은 『깨끗한정치, 깨끗한 국회』를 강조한 全대통령은 『정치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는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公人政治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국회및 정당지도자들과의 대화정치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政府서 적절한對策을"
文公委、日교과서是正촉구 決議키로

각政黨 對策논의

民正·民韓·국민당등 각 정당과 韓日의원연맹은 오는 5일 소집되는 국회文公委를 앞두고 2일부터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日本역사교과서의 對韓관계歪曲에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民正黨은 2일 상·하오黨職者회의와 黨소속 국회문공위원간담회를 잇달아열고 文公委대책등을 논의, 日本교과서의 歪曲시정을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는한편 정당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韓日의원 연맹을 窓口로 최대한 活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金瑢泰대변인은 회의가끝난후 『이번국회文公委에서는 논리적으로 日本교과서내용이 잘못됐다는것을 반박하고 그시정을 촉구키로했다』고밝히고 『文公委에서는 어떤형태로든 국회차원의 태도표시가 있을것』이라고 말해 文公委가 결의안이나 성명을 채택하게 될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李載瀅대표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權翊鉉사무총장, 金潤煥韓日의원연맹부회장, 李相翊간사장등과함께 야스이회장의 回信을 검토하고 의원연맹이 취할 방안등을 논의했는데 야스이회장은 교과서 歪曲是正을 촉구한 李載瀅한국측회장의 書翰에대한 答信에서 『유감된 부분을 공동노력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뜻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당은 3일 상오 총무단·黨소속문공위원연석회의를, 民韓黨과 韓日의원연맹은 4일상오 연석회의와회장단·간사회의를 각각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內政간섭" 말안해 마쓰노發言은 사실

일본外務省은 교과서 歪曲記述문제와 관련, 오가와(小川)文部相이 지난달27일 『교과서문제는 일본측의 內政문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성가신 일을 받고싶지 않다』고 발언한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됐으나 마쓰노(松野)국토청장관의 이와유사한 발언은 사실이었다고 駐日한국대사관에 통보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스즈끼訪中 차질우려
日、中共의 文部相초청취소에 당황

【東京2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中共이 교과서문제를 에워싸고 오는9월상순으로 예정된 오가와文部相의 中共방문을 갑자기 취소한데 대해 충격을 받고 대책에 부심중이다.

일본 외무성은 中共측의 강경한 항의와 오가와 文部相의 訪中취소등 사태악화에 따라 9월하순 예정인 스즈끼 수상의 訪中도 취소되는등 차질을 주지않을까 우려, 북경주재 일본대사로 하여금 중공정부의 진의를 파악토록 긴급 지시했다.

中共측이 지난19일 오가와 文部相을 초청할것을 타진해온뒤 지난28일 정식으로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갑자기 그의 訪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한것은 日·中共수교10년만에 있는 큰 시련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일본[illegible]의 訪中을 中共정부가 취소한것은 鄧小平부주석등 中共최고지도자들이 협의끝에 내린 단안으로 北京정부가 얼마나 교과서문제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이고있는가를 말해주는것이라고 외교 분석가들은 보고있다.

中共은 아직까지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 문부성의 설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오고있는데 이 사태가 악화될경우 日·中共修交10주년을 맞아 두나라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있다.

北傀, 「멸공28」訓鍊 北侵준비 謀略비방

【서울=聯】北傀는30일 北傀軍 비정규부대의 수도권 침투·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실시한 「멸공28」훈련에 트집, 「北을 반대하고 공격하기위한 北侵전쟁연습」운운으로 왜곡비방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北傀방송은 이 훈련이 『北侵전쟁준비 본격화』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北韓주민들에대해 이같은 「北侵전쟁」을 반대해서 『더욱 과감히 투쟁할것』을 촉구, 긴장의식 조성에 열을올렸다.

入港외국 船員에게 北傀, 金正日선전

【서울=聯】金正日후계체제 합리화에 안간힘을 다하고있는 北傀는 최근 北韓의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에게까지 金正日우상선전을 펼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北傀의 선전기관들에 의하면 北韓의 주요항구에입항한 외국선원들이 열었다는 對北「友好」정치선전집회소식을 전하면서 이들 외국선원들이 金正日의 「영도력」을 찬양했다느니 그의 「만수무강」을 빌었다느니 운운으로 선전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北傀는 그들 항구에 入港하는 외국선원들에대해 北傀가 제시하는 내용의 정치선전집회를 요구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日本족이래야만되는가 <2>

歷史歪曲 侵略과동시시작
日은 한국인의憤怒 알아야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底流

한동안 서울勤務를하던 일본의 어느 知識人이 돌아가서 쓴 手記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한국을 理解하기 위해 우선 일본인이 지은 한국역사책을 사모아 보았더니 이른바 植民地時代에 역사 記述이 점차로 변화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다고하면서 崔勉庵의 義兵을 예로 들고있다.

―합방직후인 1912년에 나온 A書에서는, 면암의 『憂國至情에 동정이나 이해를 표시한 문자』는전혀 보이지않지만 그래도 『老儒 崔益鉉』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서, 그 당시의 일본사람같으면 훌륭한 학문이 있는 노인이 부득이한 심정으로 궐기를 했구나」하는것을 곧 짐작케 하도록 되어있다。

―그뒤 1917년에 나온 B書는 『문제가 매우많은책』인데, 그래도 『儒生의 主領, 前參政, 崔益鉉』이라고는 분명히 기록을하고, 그대신 통감부의 노력으로 사형은 면했다고 믿기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편도 훌륭했지만 일본측도 武士의情義를베풀었다』으로 서술하고있다。

―1923~4년의 C書에서는 면암이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수가 없고 『문장의 전후에서 받는인상은 도둑과 종이 한장 차이의地方보스같은 사나이、세계의 움직임이나 중앙의 움직임도 모르는 頑迷固陋한 사나이」처럼되어있다。

최면암에관심을 표시한 이 일본인은 이런 말도 곁들이고있다。

―『벌써 이 무렵(1920년대)에는 「義兵」이라는 19세기의 향기 감도는 영웅적인 말은 粗野하고 폭력적인 느낌인「不逞鮮人」혹은「滿洲馬賊」이라는 말로 代置되어、昭和로들어와서 성장한 세대에게는「의병」이란 말과「조선인」이란 말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서로 잘 어울리지않는 인상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온셈이다』

그는 安重根 의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내가 배운책에서는「暴漢 安重根이 伊藤公을 暗殺」운운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무서운 조선인폭한인가 생각해 왔는데、실은 교양있는 이조 말기의 愛國者인 것이다。…일본으로 말하면 明治維新의 志士들 중에서도 一流클라스의 인물이 아니었나생각된다。…일본의 閣僚를 포함해서 당시의 일본인이 다투어 獄中의 안중근의 揮毫를 구했다는데、이것이 사실이라면 明治때 사람들은 안중근이 위대한 것을 잘 알면서도 후세의 우리들에게는「폭한 안중근」으로 가르쳤다는 말이 되겠다』

引用이 너무 길어졌지만 歷史敎育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일본의 한 知識人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서 였다。

일본에서 任那日本府라는 허무맹랑한 학설을내세울때 중요한 物證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廣開土王陵碑〉다。이〈능비〉를 가지고 보아도「임나일본부」설은 증명이 안되는것이지만、그拓本을 처음 일본으로 들여간 것이 일본의 정보장교였고 그 탁본의 解讀을 처음 시도한 것이 일본의 참모본부였다。여기에 의심을 품은 李進熙씨가 이〈능비〉에 人工의 造作이 가해진 사실을 밝혀내 일본학계를 발칵뒤집어놓은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조작이나 아니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여기서 유심히 보아둘 것은 일본의 정보장교가 鴨綠江중류 협한 골짜기를 찾아들어 탁본을 떠서 돌아온 것이 1884년、일본을 배경으로 한 甲申政變이 있던 해라는 점이다。또 참모본부의 해독을 기초로 해서 이〈능비〉가「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된다고 한 억지견해가 처음 공개된 것이 1889년、日淸戰爭 5년전이라는 점이다。

歷史란 그저 무해무득한 옛날 이야기만이 아닐뿐더러 여기에 어떤 目的意識이 끼어들면 엄청난 波及效果를 가져오기도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內田良平이라면 한일합방을 막후에서 추진한 黑龍會의 일본 浪人、한국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지방마다 敎育熱이 대단했던 한말 얼마전、그는 『[illegible]』에게 학교 다닌 목적을 써보라 했다。『孟子·年15。연필을 잡고 20여行의 政論을지어 「泣血」이라「不忍言(차마 말못할 심정)」이라하고 최후에 [한국을 富強한 독립국으로 함을 최종목적으로 삼노라」고 결론을지은지라…」內田은 크게 분개하여『오호라、이 뉘罪인고。이같은 교과서는 속히 불사르지 않을수 없도다。이는 韓童에게 黑死病毒을 부림이로다』라고 적었다。

진시황은 焚書坑儒를 했다지만、일본의 통감부도 과연 역사·전기등을 중심으로 수십종의 서적을 거둬들여 불을 질렀고、의병이 붙들리면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경우가 많았던 것은 口傳만이 아니라 간혹 남아있는 實況사진이 그것을 증명한다。

당시의 일본은 각처에서 合邦의 整地作業의 하나로 역사교육에 눈가리개를 씌운 것이다。수십년후에 사회발전의 추진력이 될 世代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先入見을 注入할 수도 있는 것이 歷史敎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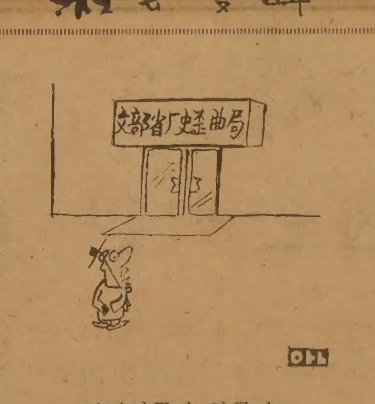
矢內原忠雄이라면 동경대학 교수의 자리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해방후에 복귀하여 그 대학 총장을 지낸 植民政策전문가요 저명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1926년에 일본의「조선통치」정책을 비판한 글에서 韓人 초등학교에 조선 역사·지리과목이 없는것을 지적하면서 이렵게 적고있다。『나는조선인 보통학교의 수업을참관하고、조선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에 대하여 일본어로 일본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落淚를 금치 못하였다』고。

우리로서 지금 생각하면 낯이 화끈해지는 광경이다。그리고 우리의 민족정신은 아무리 不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해방이 10~20년만 늦어 졌더라면 우리의 몰골이 얼마나 사납게 되었을까、소름끼치는 상상마저 해보게 되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 문제에 한국인이 어째서 이처럼 흥분하고 있는지、일본측은이것을 알아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더구나 없던 것을 있다고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있던대로 써달라는 것이다。그보다도 일본의 교과서가 꼭그래야만할 이유가 무엇인지、易地思之해 볼일인 것이다。

社會漫評



전담기구가 있구나…

地平線

우리의 불고기는 옛날 중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것같다。晉나라때 『搜神記』라는 책에는 『貊炙』이라고해서 우리의 불고기에관한 기록이 나와있다。『예부터 중국인들은 이 오랑캐의 음식을 즐겨 먹는데 대해서 귀인·부호들이 잔치때면 반드시 마련했다』고 한다。釋名이나 儀禮같은 고전은 이 오랑캐의 불고기는 미리 양념을 해서 굽기 때문에 장을 바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우리가 소의 갈비를 먹게된 것은 고려가 몽고의 지배권안에 들면서부터였다고 李盛雨교수는 말하고있다。지금은 값비싼 고급식품인 소의 밥통·곱창도 이무렵부터 먹게됐다한다。소를 잡을줄도 몰라서 고려에서는 몽고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다。『보신탕』도 원래는 중국에 있는 풍속이었지만、중국에서는 사라졌다 한다。▼음식은 오랜 전통의 산물이지만、또한 세월 따라 변하는 문화적 산물이다。중국의 고전이 기록하고 있는것처럼 우리 음식의 특징은 흔히 양념이라고한다。단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을 비롯해서 콩으로 담그는 장、그리고 매운 고추와 깨같은 것들이다。이중에서 마늘은 우리 민족의 고향인 시베리아 일대에 많이 나는 푸성귀의 하나라고 李교수는 말한다。▼그러나 세계가 한울타리안에 들게 된 지금은 음식도 차츰 국제적인 상업활동의 영향을 받게됐다。몇해전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을 예로 들수있다。할런드·샌더즈라는 미국의 장사꾼이 시작한 이음식은 세계40개국에 6천개가 넘는 가게에서 팔리고있는 닭튀김이다。말하자면 국경을뛰어넘은 국제적음식이요、국제적코리다。▼켄터키·프라이드·치킨뿐만 아니라 미국은 햄버거나 핫도그와 콜라라는 국제적음식물로 세계의 식탁에 혁명을 일으켰다。그래서 버거·킹이나 맥도널드같은 미국의 외식산업은 세계를 지배하는 재벌이다。이들 국제적 음식의 특징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큰 저항감없이 먹을수 있는「국제성」에 있다。뒤집어 말하자면 그만큼 맛이 없는 음식이기도하다。▼서양사람들이 흔히「애피타이저」로 음식을 시작하는것도 음식의 맛이 없기때문이라고 할수있다。우리네라면 새콤한 김치나 갖은 양념이 있어서 음식자체가 군침을 돌게하는 애피타이저다。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말도 된다。서울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해서 전통음식점을 육성하기로했다한다。전통을 강조한 나머지「국제성」을 무시하지않도록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구독신청 533-2361

崔永喆의원등 歸國

국회保社委의 崔永喆위원장과 文炳良,洪鍾旭(이상民正)鄭貞薰(民韓)金完泰의원(국민)등은 멕시코·콜롬비아등 中南美국가의 의료실태등을 시찰하고 1일하오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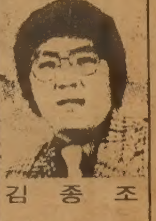
李文公長官 귀국

李振羲文公部장관은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후 2일하오 KAL便으로 귀국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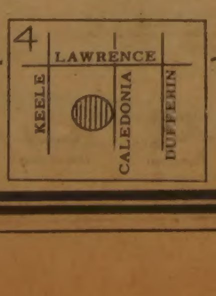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에 한함

August 2 - August 14		SPECIAL
Leaf Ball Gum	24x25¢	$ 3.90
Thrills Regular Gum	36x15	3.50
Gobstopper	24x25	3.95
Mike & Ike	24x25	3.57
Lola 250ml	24x33	4.45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50x10	1.70
Tootsie Roll	240x.2	1.70
Y & S Twizzlers	60x10	2.69
Hershey Regular Bar	36x40	7.9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약간명의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 Hamburger Shop($65,000):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센터 내. Rent는 $575(월)이며, 9년간 지속, 비데오게임 2대의 면허(월 순수입 $1,200), 현재 매상은 많지 않으나, 좋은 장소와 Rent & Lease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상 늘리고자 하시는 분에게 적합. 일요일 휴업.

◉ Variety & Hardware($59,900): HWY 401과 Kingston Rd 동쪽의 동네 안에 위치, 위에 층에 살림집있으며, 넓은 주차장 있음, 가게크기 1,500 s.f정도, 주매상: $6,000이상 개런티, 이윤 30%이상, 건물매매도 가능.

◉ Gas Station: 월 수입 만불이상, 적은비용, 모든 장비와 살림집, 그리고 2.4에이커 대지포함, 해밀톤 서쪽에 위치, Price Reduced to $259,000 Only.

짧은 시간, 편한 사업

◉ Card Centre($42,000): 가게시간 9:30~5:00(월~금), 이윤 45%이상,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상가 내, 새로운 통로가 연결될 계획이며, 전망좋음, 작년 순수입 $25,000이상.

◉ Card Centre($59,900): 시간 10:00~6:00(월~토), 이윤 47%,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 바쁜 쇼핑몰, 2년됐으며, 앞으로의 전망좋음.

◉ Card Centre($150,000): 영업시간 주50시간 미만, 다운타운 Royal Bank Plaza 내, 년 수입 5만불이상.

◉ Variety & Gift($45,000): 시간 8:00~6:00(월~금), 주매상 $3,500~$4,000, 이윤 35%선, 곧 은퇴할 노부부가 운영, 전망좋음.

★기타 : 다른 사업체나 부동산들도 있읍니다.

全大統領 鎭海회견 一問一答 要旨

"어떤非違도 公開"

物價안정 바탕 質높은成長 확신

言論은 「나의 나라」 主人의식 갖고 先導的 역할을

北傀 內政불안… 對南도발가능성

第5共和國 1年

—제5공화국이 출범한지 1年餘의기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지난 1年여동안 우리는 새공화국출범에 따라 모두가 벅찬 기대를 안고 한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

그 결과 짧은기간에 지금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내었읍니다. 미국방문과 아세안제국방문, 그리고 88올림픽의 서울誘致 성공으로 우리외교도 正常을 되찾게 됐으며 바야흐로 우리의 국력이 세계로 뻗어나는 발판을 구축했으며, 건국이래 처음인 通禁解除, 여행자유화, 기업활동自律化, 해외이민 및 유학문호개방등 일련의 自律化 開放조치로 지난날 「規制의 시대」에서 이제는 「自律化의 시대」로의 移行을 촉진하여 건전한 해방감속에 우리사회를 활력에 넘치게 했다.

그러나 好事에 多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順風에 돛단것같은 航路에 때아닌 폭풍과 暗礁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釜山 미국문화원 放火사건, 慶南宜寧사건, 李哲熙·張玲子 부부 어음사기사건같은것들이 그런것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한때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당초에 설정해 놓은 航海의 목적지가 옳고, 이 목적지까지 기필코 第五共和國이라는 巨艦의 닻을 내리게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 간절한 이상,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가 화합속에 뜻과 슬기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일시적인 難航을 헤치고 順航을 계속할것이며 기어이 우리의 목적지에 닻을 내리고야 말것이란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다.

오늘의 國際情勢

—지금의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는 오늘의 국제정세를 대체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닌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세계각국은 그어느때 보다도 自國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수단과방법을 안가릴 정도로 冷酷해지고 있다는점이다.

둘째 오늘의 국제정세는 그어느때 보다도 不確實性과 不安定性이 深化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어느누구도 내일의 정세를 정확히 전망하거나 豫斷할수없는 混沌의시대가 바로 오늘의 세계라 하겠다.

세째 오늘의 세계는 그어느때보다도 국가간의 분쟁과 마찰이 잦아지고 그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끝으로 오늘날의 국제紛爭은 강대국에 의한 仲裁役割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감소됨만큼 국제권력구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두말할것도 없이 北韓공산집단의 武力南侵위협이 가장 절박한 국가안보상의 危害요인이긴 하지만 北傀이외에도 어느 세력, 어느집단에 의해 언제 어디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우리나라의존립을 위협당할수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機敏하고 정확하게분석,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對處해 나갈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일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태가 국가에 닥치더라도 이를 능히 이겨낼수있는 우리의 독자적인힘, 즉 國力을 급속히 신장시키는 것이며, 國力배양을 위해서는 우리국민모두가 냉엄한 국제환경을 직시인식해서 서로가 굳게 뭉쳐 國民總和合을 이룩하는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國防과 外交安保

—이러한 國際環境속에서 우리의外交安保태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안보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적극적·진취적인 자세위에 서서 韓半島의 安全을 지킴은 물론 北傀를 압도하는 국력을 키워 80년대에는 평화적통일의 轉機를 마련해야 한다는것이 나의抱負이며 소신이다.

우리 軍은 어떠한 敵의 공격에서도 首都圈을 위주로하여 現前線을 고수하여 초기에 적을격퇴할 應戰態勢를 확립하고 있으며, 非正規戰에대한 대비도 물샐틈없이 갖추고 있읍니다. 軍의 사기는 어느때보다도 높으며, 軍의 精銳化와 더불어 軍幹部의 자질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陸·海·空軍은 가장 선진적인 군사교리와 戰術·戰略을 터득한위에 한국의 특성에맞는 軍事敎理·戰術을 개발하여 막강한 전투력을 갖게되었으며, 팀·스피리트 82와같이 세계적인 합동작전훈련과 교육전투훈련을 통하여 實戰역량은 이미 세계頂上의수준에 이르고있다.

또한 우리는 戰力增强事業을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防衛産業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太平洋 정상회담

—지난 5월 프레이저 濠洲首相이 訪韓했을때 太平洋頂上例會談을 제의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의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세계2차대전을 고비로 世界史의 中心圈은 太平洋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확실히 太平洋이 世界史의 中核지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太平洋은 지역적 廣大性, 인종적 및 문화적 多樣性과 異質性 그리고 경제발전수준의 不均衡性 등으로 하나의協力圈을 형성하는데 많은 제약을 안고 있음은 다알고 있는 바이다.

첫째 太平洋시대의 실현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제약과 장애와 도전적 요소를 극복하는데 가장 빠른길은 太平洋沿岸國의 頂上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協議體에는 域內의 모든 국가에 원칙적으로 문호가 개방되기를 본인은 희망한다.

세째 域內모든 국가간의 관계는 主權과 獨立의 존중, 互惠 平等, 內政 不干涉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국가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政治化, 블록化도 止揚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네째 沿岸國이 보유하고있는 발전의 무궁한 潛在力을 다방면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域內의 무역증대, 경제기술협력의 강화, 인력개발, 교통통신망 확충, 교육문화교류의 증대등이 이 協議體의 주요관심사가 될것이다.

다섯째 域內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간의 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상호간의 협력이 擴大, 深化됨으로써 이른바 南北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모범을 보일수 있을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앞으로 太平洋頂上會談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域內제국의 찬성이 따라야 하겠지만, 본인은 작년도 아세안5개국 訪問시에 각국의 頂上과 맺은 友誼와 理解를 바탕으로 域內제국의 지지와 호응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작정이다.

加·아프리카 巡訪

—대통령께서는 8月中旬, 아프리카 4國 및 캐나다國을 巡訪하실 계획이어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것인지요.

▲이번에 방문하게될 지역중, 특히 아프리카는 그동안「잠자는大陸」으로 일컬어져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活力으로가득찬「躍動하는大陸」으로탈바꿈하고있다.

더우기, 이 지역의 국가들은 국제정치무대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第3世界外交, 平和統一外交에 있어 매우 강력한 지원세력이 되고있다.

나아가, 이들 나라들은 未開發된 無盡藏한 潛在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더 없이 큰 相互補完協力의 同伴者가 될수 있다.

또한 캐나다國은 정치, 사회, 문화등각방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매우 긴밀한 우호관계에 있을뿐 아니라, 北傀의 6·25南侵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이 피를 흘린 바 있는 전통적 盟邦이다.

北傀의 최근動向

—최근 北韓의 動向이 심상치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이 안고있는 여러가지 體制的·구조적 모순을 감안해 볼때, 그들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것은 오히려 당연한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로는 이러한 對內外的 반발과 불만이 北韓의 구조적 문제점인 慢性的 경제침체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더불어 相乘作用을 일으켜 北韓전체에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의 현체제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태들, 이를테면 北傀지도층을 비판하는 不穩비라 撒布事件, 列車大爆破사건, 軍部지도자의 中共으로의 亡命사건, 大規模 怠業사태등이 續出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미 최근의 잇달은 보도들은 北韓내부에서 급격하고도 강력한 對內的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충분한 시사를해주고 있다.

아울러, 저들이 對內的 불만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같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하나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權力世襲에 대한 共産宗主國의 승인을 얻어내거나 이에 유사한 외교적행각을 벌이는 일인것이다.

對南緊張조성의 면에서, 北韓은 지난 수개월전부터 「強硬路線」으로 전환한 것 같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최근 저들은 對南관계工作기구를 대폭 개편,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休戰線에서의 武力挑發, 公海上에서의 漁船납치등 직접적인 對南도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對南선동및 攪亂등 韓半島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갖가지 술단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저들이 우리와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큰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저들의 對內的 狀況, 구체적으로 말해 世襲體制구축기도에 대한 내부적불안에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본인은 저들이 이러한 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한 우리의 평화노력에 응하지 않을것임은 물론, 본격적인 對南武力挑發이라는 위험마저 자행할 가능성이 漸增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北韓당국의 최고책임자가 中共을 방문할것이라는 보도는 저들이 對外的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의 일단이라고하겠다.

巨額어음詐欺사건

—李哲熙·張玲子 부부의 巨額어음詐欺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사건은 그동안의 수사및 裁判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한마디로 우리가지녀왔던 痼疾的인 金融風土의 虛點을 교묘하게 惡用한 사기사건이다.

정부로서 할일은 첫째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조치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런사건이 발생할수 있었던 소지가된 金融風土에 대하여 근본적인改善을 단호히 함으로써 사건再發을 봉쇄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이두가지 조치는 지금 모두 이미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건의 배경에 정부나 執權黨이 介在돼 있지 않았나하는 誤解가 일부있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政治資金을 둘러싼 많은 疑惑사건을 보아온 舊時代의 경험이 있는만큼 그와같은 先入見에서 사건의 眞相을 誤解하는사람도 있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사실이란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의 그와같은 非理에 終止符를 찍기위하여 태어난 정부이다. 또한 憲法의 理念에 비추어 權力의 장기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을 가져서도 안되고 또 가질생각도 않고 있는 정부인 것이다.

바람직한 政治像

—바람직한 政治像은 무엇이며 또 그와 관련하여 현재 國會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새시대의 정치, 새시대의 國會는 무엇보다도 돈이 介在되지 않는 깨끗한 政治, 깨끗한 국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指彈받던 지난날의 국회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는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公人政治」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 모든 人間事의 一般법칙입니다마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할때는 그로인해 不利益을 받게되는 他人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야기시키게 된다.

정치도 예외일 수가 없다. 정치인 개인의 이익 또는 특정정당 정파만의 이익에 집착할때 극한적인 대결 정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全體의 利益을 생각하는 「公人정치」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고 대신 대화정치가 터를 잡게되는 것이다.

현재의 제11대 國會가 對話政治의 전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을 나는 잘알고 있다.

본인은 대화정치의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몇차례 정당대표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한바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국회 및 政黨지도자들의 이와같은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言論에대한 見解

—언론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싶은데.

▲정부나 언론이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지향하고 있음에는 다를바가 없다고 할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언론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창조적인동반자의 관계에서야한다고 생각한다.

否定과 抵抗, 비판을 위한 비판만이 언론의 할 일이라는 생각은 舊時代의 遺產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온국민이 함께 창조하는 80년대에 있어 우리 언론과 언론인은 이나라가 나의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主人意識의 바탕위에서 자유와 책임을 함께생각하는 창조적 자세를 定立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때때로 언론의 위치와 사명을 다소 착각하여 理性的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는 허위 誇張, 人身攻擊, 흥미위주의 偏情的 보도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文化民族의 긍지에 비추어서도 고쳐져야 할것이다.

우리經濟의 展望

—우리경제의 實相과 전망에 관하여 엇갈리는 분석이 있읍니다마는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는 그동안 안정속에서성장하기위하여 근로자는 賃金引上을 自制하였고, 농민은 농산물가격의 안정에 협조하였으며, 기업은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노력하였다. 정부도 예산개혁을 통하여 금년도 예산을 2천1백억원이상 절약토록 하였다.

지난 7월 평균 물가는 1년전에 비하여 도매물가가 3.1%, 소비자물가가 4.6%밖에 오르지 않아 安定勢를 보이고 있고, 經常收支赤字는 금년 상반기중에 7억불에 불과하여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27억불 赤字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制度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고통이나 불편은 따르게 마련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은 전국민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기술자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생산자는 제품의 질적향상을, 그리고 政府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경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할수 있고, 앞으로 5~6년내에 국민 총생산이 1천억불을 넘어설것으로 확신한다.

經濟政策의 방향

—「6·28조치」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온 긴축정책을 포기하고 인플레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急旋回한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경제도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펼수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나는 보고 있다.

그러한 여지위에서 金利나 法人稅率의 대폭 인하를통해 기업활동의 潛在力을 배양시키고 한편으로는 中小企業 육성, 金融自律化및 私債陽性化와같은 政策추진을 통해 중단없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하는것이 이번 조치의 의의이다. 이번 조치로인해 總體的으로 資金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야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主去來은행에서 기업의 投資내용을 국산시설과 輸入기계로 양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구입자금은 외국借款에 의한 현행 外貨貸付제도에따라 外貨자금을 공급하고, 內資所要만을 국내자금의 융자대상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陰性的으로 거래되어온 私債가 양성화되게 됨에따라 銀行예금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 나겠읍니다만 이경우에는 指標上으로만 통화량이 늘었는것이고, 超過需要를 일으키는 요인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해야할 일들에는 우리의 경제현상속에 있는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한것이라고 할것이다.

—「7·3조치」를 단행한 취지는 무엇이며 私有財產權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또 貯蓄意欲을 감퇴시키고 投機를 誘發할 가능성은 없겠는지.

▲「7·3조치」에는 私有재산과 일체의 旣得權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소급적용은 없으며, 앞으로 補完과정에서도 개인재산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보장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 나갈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法에 따라 實名化된 개인의 私有財產에 대하여 일체의 資金出處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預金主의 금융거래상황등의 비밀은 稅金徵收목적 이외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장할것이다.

貯蓄意欲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번 금리인하는 물가보다 월등히 높은金利水準에서 취해진것이기 때문에 貯蓄者의 收益率과 기업의 收益率간의균형을 이루게하여 각부분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조치를 통해서 實物投機가 일어날것이 우려 없을뿐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것이다. 今番의 金利引下는 無住宅庶民의 「내집마련」을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부연하는 바이다.

外資導入의 문제

—대폭적인 金利引下나 法人稅率引下는 貯蓄者의 희생위에 기업에게만 이득을 준다는 발론도 없지않으며 또 外資導入기피현상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것같은데….

▲金利및 法人稅率 인하가 기업에만 이득을 준다는 反論도 없지않다고 했읍니다만 이것은 사실을 잘못인식한데서 나온것이다. 우선 金利와 法人稅率 인하로 기업의 생산단가가 절감되면 이것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게된다. 그리고 기업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에너지시설改善나 기술개발등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향상시켜 성장을 加速할것이다.

外資導入忌避현상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읍니다마는 나의 전망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가안정과 國際收支改善이었다.

대체로 보아서 금년의 經常收支赤字는 25억불정도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우리의 물가안정에 힘입어 이수준이하에서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등으로부터 우리가도입하는 長期 자본은 금년의경우 25억불정도가 될것이며 向後에도 이수준에서 長期資本 도입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된다.

人氣위주施政 배격

—대통령께서는 평소부터 人氣爲主의 言動을 적극 배격해 오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소신을 貫徹해 나가시는데있어 苦衷은 없는지요?

▲나의 신념은 모든 國政수행에있어 人氣만을 위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誇張된 인기정치보다는 기반을 튼튼히 갖추는 內實있는 정치를 펴는것이 절대적인 나의 소신이다.

물론 인기도 얻고 국가적으로도 좋은정책이라면 두말할 나위없이 채택해야 될것이지만 그런 일들은 이미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은 우선 오늘만을 위한 인기냐, 아니면 시국의 먼 내일을 위한 非人氣정책의 채택이냐의 갈림길에 나를 항상 서게하고 있다.

그럴때마다 나는 나 개인의 인기를 우선적으로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국가와 전체 국민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용한 다수의 국민은 나의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 마음에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두고자 한다.

國民의 마음가짐

—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모두가 지녀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나라 안팎으로 太平盛世가 아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때 일수록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말고 느긋하게 낙관적으로 가져달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을 일시에 다 만족시키는 일은 어려우므로, 실제에 있어서, 국민의 少數意見이나 이익도 疎忽히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여러분들은 이같은 정부의 衷情을 깊이 이해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불신·反目하거나 疎外感을 갖는 일이 없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다.

국민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잃지말고 본인과 정부를 믿고 모두가 화합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확신을가지고 자기일처럼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메아리

고래잡이 海賊

『논의의 表象은 리바이어던(聖書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짐승)이 이처럼 널리퍼진 사냥을, 이처럼 냉혹한 파괴를 얼마나 이겨 내느냐는 것, …마지막 한마리 고래가 마지막 한사람 처럼…사라져 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허먼·멜빌(1819~1891)의 해양소설 『모비·디크』의 한구절이다.

일요일(1일) 밤 KBS—TV에서 방영한 그레고리·펙 주연의 同名영화(일본의 번역을 따라 제목은 「白鯨」)를본 감회도 그렇거니와, 사실은, 앞의 인용은 재작년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광고로부터의 再引이다.

그 광고는 우리 신문으로 치자면, 8단 全段쯤은 됨직하게 크다. 『동물福祉협회』라는 환경보호단체의 이름으로 된 이광고는, 1백년전 멜빌의 豫言的인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海賊捕鯨」을 나무라고 있었다. 그 격렬한 광고문안과 함께, 이광고가 준 충격은, 「海賊日本」의 공범으로 한국을 指名하고 있었다.

멜빌이 걱정했던대로, 과연지금고래는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앞서의 광고는고래의 멸종을 막기위해, 최대의 捕鯨國인 일본首相앞으로 항의편지를 낼것, 捕鯨國의 상품을 보이코트할것을 호소하고있다.

꼭 광고만의 효력은 아니겠으나, 일본의 首相사무실인 總理府에는 수만통의 항의편지가 몰려들어 담당자를 아연케 했다는것이 後聞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래 보호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렬한지를 알것이다.

그 결실이 지난달 23일 영국 브라이톤에서 열린 국제捕鯨위원회(IWC)의 25대7 결의로 나타났다. 86년부터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유엔環境회의가 채택했던 고래잡이 금지권고결의안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달의 일을 새삼 거론하는 까닭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일본을따라 「捕鯨한국」을 과시한 사실을 짚어 두고 싶어서다.

작년 우리나라는 沿岸漁業으로 7백60마리의 밍크 고래와 단한마리의 큰고래, 6백69톤을 잡았다. 값으로쳐서 25억원. IWC가 배정한 마릿數조차 채우지 못했고, 그 거의다(3백17만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이에 종사하는 고래잡이 배가 21척, 加工·판매를 합친종사자가 2천명이다.

이것을 한해의 고래잡이가 1만1천마리, 종사자 2만명인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捕鯨國이랄 것도 없다. 스톡홀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견을 보류했었다. 捕鯨國이지만 세계 여론의 동향을 생각한 것이다. 브라이튼회의에서는 捕鯨國 11개국 중 스페인, 칠레등이 탈락하는 마당에, 일본을 追從하여 7표의 소수편을 들었다.

지금 일본 여론은 IWC와, 그를주도하는미국의「횡포」가 심하다고 바글바글끓고 있다. 일본 사람의 단백질 供給을 방해한다고 분개하면서, IWC 결의를 무시하고 고래잡이를 계속하거나, IWC를 탈퇴한다는 강경론이 판을 친다. 『모비·디크』를 예로들어 고래의 씨를 말린것은 미국이지 일본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일본의 딜레머는 IWC를 무시하는 경우,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北太平洋 미국연안의 入漁가 금지된다는 데 있다.

일본이 세계의 뭇매를 맞는것중의 하나가 고래잡이다. 그런줄을 알면서, 일본편을 들고, 세계여론 앞에 우리나라 이미지를 떨어 뜨린 것은 너무나 無定見하다.

北洋에 관한한 우리처지는 일본보다도 약하다. 北洋어장을 포기할수없다면 어차피 고래잡이는 포기해야 한다. 지금 부터라도 종사자의 전업을생각해야한다. 더 이상 일본과 맞장구 칠것은없다. 브라이튼에서 우리나라가 日本追從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金昌悅
<編輯委員>

海外토픽

◇적발되는 裸體族 美國뉴저지州의 한나체주의자가 공원경찰로부터 공원앞의 나체혐의로 소환장을 받고있다. 지난7월31일 샌디후크州立공원에서는 6명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나체일광욕장의 개설을 위해 옷을 완전히 벗었다가 공원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미뉴저지州=AP】

寶物船 잔해 發見

★아이슬란드, 3백년만에

지난1667년에 네덜란드의 상선이 43톤의 금괴와 4톤의 다이어먼드를 싣고가다가 좌초,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기록을 믿고 지난23년동안 남부 아이슬란드 근해를 수색해온 발굴단은 마침내 금년초여름에 바닷속 모래밑에서 문제의 선박의 잔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기록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상선인 알즈·오브·암스테르담호가 금괴와 다이어먼드를 가득싣고 극동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도중 아이슬란드 근해에서 폭풍우를만나 좌초침몰했다는것. 【레이캬비크=AP】

半數이상이 不發

★포클랜드戰 아르헨爆彈

영국은 최근 비밀보고서를 통해 미국방성에 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군함들을 공격한 아르헨티나폭탄들의 반수이상이 불발로 그친 사실을 통보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 포스트지는 불발된 폭탄들은 대부분 약 18년전 미국으로부터 구입된 것들로써 이 불발탄들덕분에 영국이 포클랜드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워싱턴=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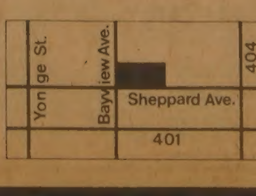
楊貴妃 浴湯찾아내

★中共「화·킹」溫泉場부근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陝西성 성도 西安교외 「화·킹」온천부근에서 당나라 현종과 그의 애첩 양귀비가 즐겨찾던 욕탕을 발견했다고 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그비극적최후는 당대의시인 白樂天과 淸나라문인 洪生의주제가되어 더 유명해졌는데이들 고고학자들은 7월초 화·킹온천장을 수리하던중 이욕탕을 발견한것. 【北京=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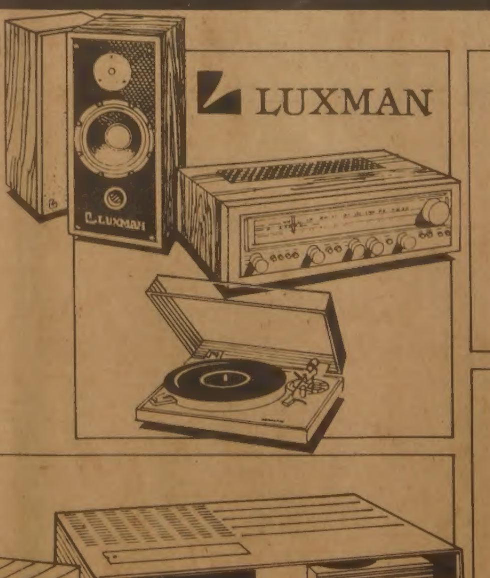
최고 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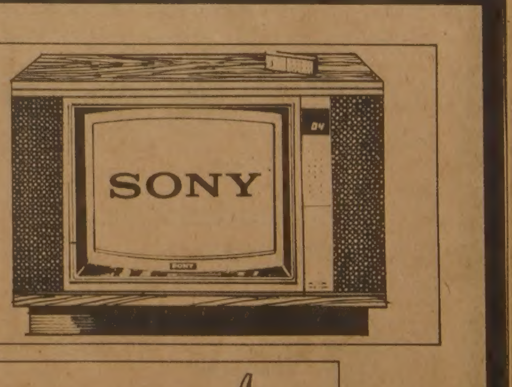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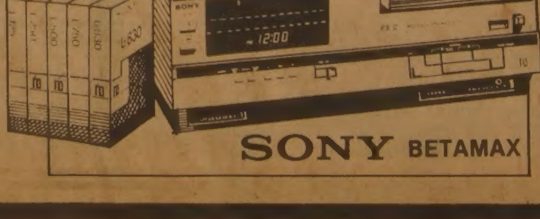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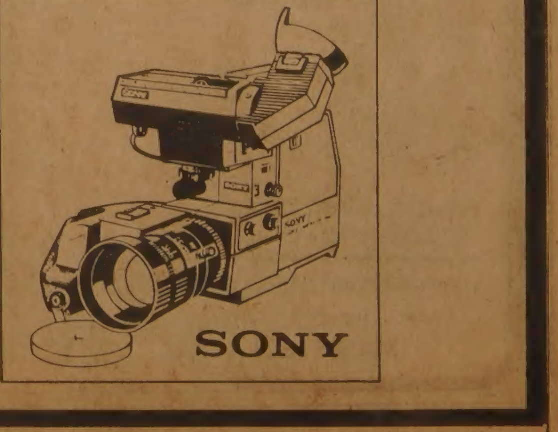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 V. C.
Panasonic
Sanyo
A. K. G.
Sennheiser









金鉉獎·文富軾 死刑구형

釜山 美文化院 방화사건 結審공판

崔基植신부 징역5년

金恩淑피고등 5명엔 無期

◇구형공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고인들。위로부터 崔基植신부、文富軾、金鉉獎피고인。

【釜山=林承茂기자】부산지검 공안부 金斗壽부장검사는 2일 부산미문화원 방화및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대한 결심공판에서 崔基植신부(39)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은닉죄등을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방화범행 주모자로 기소된 金鉉獎 文富軾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방화범행에 적극가담한 金恩淑 柳承烈 李美玉 崔貴純 金志禧등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朴顯植피고인등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3년에서 10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韓·美이간노려 安保위협"論告

"人命피해를 깊이 뉘우쳐"辯論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구형공판에서 金斗壽부장검사는 논고문을 통해『이사건의 피고인들은 의식화학습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망상해온 좌경불순분자들로서 북괴의 상투적인 대남중상모략선전에 동조하여「북침준비완료」「미군철수」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공공기관에 불을질러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적인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했기때문에 국가 안보상이나 형사정책상 엄중히 단죄해야한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특히 崔基植신부에 대해『金鉉獎을 천주교 原州교구 교육원에 장기은신시켜 주어 교육원을 좌경의식화 학습장소로 사용토록 하는등 金등에대한 비호행위는 사목활동에도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우리나라의 냉엄한 안보상황과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기본원칙에 비추어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변론에서▲李敦明변호사가 피고인 전원에대한 총론과 결론을▲李興祿변호사가 의식화부분을▲洪性宇、黃仁喆변호사가 방화부분▲李淳伯변호사가 방화예비부분(朴貞美)▲趙誠來변호사가 유인물살포부분(朴願植、崔忠彦)▲柳宰默변호사가 崔基植신부▲鄭且斗변호사가 범인도피 은닉부분(文吉煥、金英愛)▲盧戊鉉변호사가 許珍洙、金華石 부분을맡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방화사건의 성격에 대해『피고인들이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며 방화사건을통해 북괴의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하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위컴사령관과 워커대사의 한국국민에 대한 모욕적인발언에대해 한미간의 호혜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우호관계를 이룩하기 위한것이었다』고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의식화는 종교계의 용어로써 인간은누구에게나 하느님의 뜻으로천부의 인권과 인간의존엄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과정이며 그과정은 상호간의 대화를통해 현실을 똑바로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인간으로서의 깨어남」을 목표로하고 있음으로 처벌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崔신부의 범인은닉부분에 대해서도『신부가 그에게 피신해온사람을 보호하는것은 교회법이 정하는바와 신부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말하고 金鉉獎이 崔신부에게 찾아왔을때 극도로악화된 건강과 각각 위병과 결핵을 앓고 있었음으로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것이 선결문제였을뿐이라 고발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고발할수 없는일은 성직자에게 기대할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했다.

論告狀 1시간동안 낭독

崔신부 팔장낀채 묵묵히

金斗壽부산지검공안부장은 이날 상오10시 공판시작과함께 사건의성격、증거、정상론등으로 54페이지에 달하는 논고장을 1시간에걸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논고가 계속되는동안 崔신부는 팔장을낀채 눈을 지긋이감고 이따금씩 천장을 응시하고있었고 金鉉獎은 양손을 무릎에낀채 고개를숙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이어 金鉉獎 文富軾에게사형이、金恩淑、柳承烈에게 무기구형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金恩淑피고인은 구형이 끝난후 변론이시작되는동안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신부5、6명 수녀10여명 가족등 80여명이 나와 공판정을 지켜보았다.

宣告공판은 11일에

선고공판은 11일상오10시에 열릴 예정이다.

海外여행 自由化후 旅券발급 크게늘어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가 시행후 지난7월31일까지 1년동안 외무부가 발행한 旅券은 모두 42만여件으로 前年同期에 비해 25%가 증가된것으로集計됐다.

邑面행정·농림직원 통합운영 昇進확대

내무부는 오는10일부터 전국1만8백여명에 이르는 읍·면행정직과 농림직을 통합운영、읍·면에 근무하는 농림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시키기로했다.

이 개선안의 주요내용을보면읍·면에근무하는6급~8급의 행정·농림직들을모두 행정、농림의복수직으로 조정、행정직과 농림직에 구애됨이없이 자유롭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토록했다.

그러나 도시행정의 수요가 많은 인구3만이상의 邑面에대해서는6급~8급 행정직정원중30%만、3만미만의 邑面지역에대해서는정원중70%만복수직으로조정토록했다.

한편 신규채용대상인 9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수의 농업계학교출신자가 읍·면공무원으로 채용될수 있도록행정직과 농림직을 구분운영하되승진때는개방키로했다.

在歐한국학 學術會

在歐한국학회(회장 李玉) 제6차학술회의가 2일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영국、프랑스、서독등 12개국 한국학연구학자 1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曲藝師의 첫사랑

東春곡예단 文춘익군·沈미선양

觀客축하속 애환의 무대서 百年佳約

【堤川】堤川市明洞공터에 자리잡은 東春곡예단 천막。트럼펫소리가 유난히 애잔하다。유랑하는 집시의 애환이 담긴 트럼펫 소리가 청승맞기는 서양이나 동양이 마찬가지지만 日政때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던우리 곡마단의 그것에는 나라잃은 슬픔까지 깃들어 있어 더욱 심금을울렸었다. 이제는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사양길인 곡마단이 이 염천에 웬 공연일까。그러나 그것은 두 젊은곡예사의 결혼식을 알리는 트럼펫 웨딩마치 였다.

신랑 文춘익군(28·東春곡단 시설책임자)과 신부 沈미선양(21·외줄타기곡예사)。3백명의 하객이 모인 천막안에서 두사람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자신들의 생명과 애환을 담은 무대위에서 서커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백년가약을 할수 있었기 때문일까. 주례까지도 東春곡단장인 朴세환씨가 맡아 금상첨화였다.

이들의 결혼식은 남들이 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멋진 서커스묘기로 하객에게 답례를 대신해 축하와 연민이 범벅이된 갈채를 받았다.

예복을 벗어던진 신랑은 신방을 꾸미듯 무대설치작업을 했고 웨딩드레스를 훌훌 벗어던진 신부 沈양은 지상 15m의 외줄에 올랐다. 순간 하객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구슬픈 트럼펫선율에 따라 沈양의 묘기가 시작됐다. 행복해보였던 신부의 표정도 일순, 외줄에 인생을 건 곡예사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신부의 아슬아슬한 공중곡예를 하객들과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신랑의 얼굴에서도 미소는 지워져 있었다.

早失父母해 어렸을때부터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며 밥을 먹었던 신랑文씨나、곡예단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신부 沈양이나、모두가 숙명의 길을 걷는 이나라 마지막세대의 집시일지도 모른다。沈양의 아버지 沈재학씨는 6년전까지만도 그럭저럭 버텨오던 신국곡예단 단장이었고、어머니 金금자씨(52)는 현재 우리나라 여류곡예사의 최고봉인 사람。

이들을 짝 지어준것은 어머니 金씨였다。東春곡예단에서 모녀애크로바트(줄타기군)로 유랑하면서 같은 지붕안의 文군을「사윗감」으로 은근히 점찍었던 것이다.

이들이 몸담고있는 東春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13개유랑곡단가운데서도 58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곡마단。코미디언 徐永春도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는 얘기가 나온다。韓水山의 소설이나 유행가를 들추지 않더라도 곡예사의 사랑은 슬프다。곡예사뿐아니고 곡예단 사람은 슬픈 浮草 운명의 굴레속에서산다。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 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일지 모른다。그들이 창조해내는 「곡예」에는 조그만치의 가식도 위선도 끼어들 틈이 없는것。가난하고 고달프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들이다.【堤川=聯】

常習 강도강간범에 "無期"

서울地法南部支院

처녀욕보인 2명에 宣告

서울지법남부지원형사합의부(부장판사 朴俊庸)는 2일 지난달30일 상습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魯洪官(20·전과3범·주거부정) 敦忠昊(20·전과2범·주거부정)등 2명에대해 무기징역을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 상오3시께 서울銅雀區上道1洞 金모씨가족을과도로위협、장롱속에있던 현금 35만원등모두 70여만원어치의 금품을턴뒤 옆방에세든 高모양(28)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8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고 高양을 차례로욕보인등 세차례에걸쳐 강간및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12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의해 사형및 보호감호7년이각각 구형됐었다.

日교과서 歪曲규탄

2천여老人會員 파고다公園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회장 李曉)회원 2천여명은 2일상오11시 서울鍾路區鍾路2街 파고다공원에서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각료들의 망언을 규탄하는「역사왜곡 규탄대회」를 벌였다.

노인들은 이날 대회에서일본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왜곡된 내용의 교과서 편찬을 즉각 중지하고 새로운 군국주의망상을 버릴것을 촉구하는 3개항으로된 결의문을채택한뒤 주한 일본대사관앞까지 항의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의제지로 1시간만에 해산했다.

群山서도 궐기대회

【群山】일본교과서 왜곡사실 시정촉구궐기대회가 2일상오10시 群山시五龍洞 노인회관앞 광장에서 4백여명의 노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聯】

잇단 어린이誘拐 협박전화

같은 아파트團地서 3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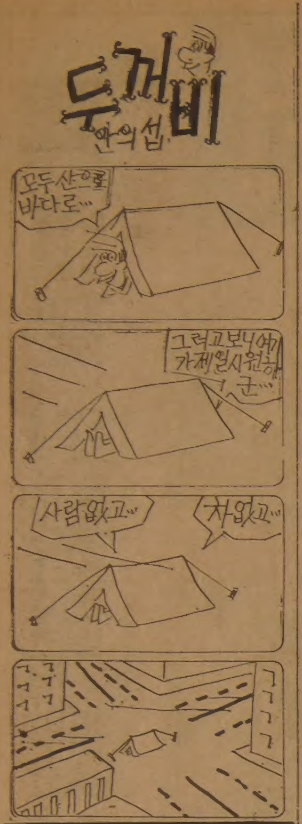
서울江南區 開院洞일대 아파트에 어린이 유괴협박 전화가 3일동안계속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상오9시20분께 서울江南區開院洞 한신공영 2차아파트 108동507호 林秉立씨(47·회사원)집에 『아들을 데리고있으니 경찰에 알리지말고 20만원을 가지고와라』는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은 임씨의 어머니 崔英愛씨(68)가『무슨얘기냐 잘못알아들었다』고 하자 전화가 끊어졌다는것.

▲지난달 30일 하오12시50분께 開院洞 한신공영10차아파트 316동1010호 鄭聖玉씨(36·회사원)집에는 『엄마』하는 아들의 소리와함께『당신아들 놈을 데리고있으니 50만원을 단지안공중전화박스앞에 갖다놓으라』라는 전화가 걸려와 鄭씨의 부인 柳基順씨(33)가 경찰에 신고한후 10만원을 갖다놨다는것. 그런데 아들喜宅군(6)과 現宅(5)군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웬 청년이『엄마를 알고있으니 전화번호를가르쳐 달라』고해서 전화를걸어주고 집에왔다고해 돈을도로 가져왔다.

▲또 같은아파트 315동711호 金榮淑씨(31)집에도 30일 하오2시 20대청년이『50만원만 준비하라、그렇지않으면 당신 딸 영은양(6)을 유괴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었다.

경찰은 일단 동일범의 소행으로보고 林군의 진술에따라 곰보얼굴에 빨간T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20대청년을 찾고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全國에 暴炎기승

8월 첫휴일 避暑인파 4百여만명

장마가 슬며시 물러나고30도를 넘는 무더위가 몰아치자 전국이 피서열풍에 휩싸였다.

8월들어 첫휴일인 1일전국적으로 4백여만명이 해수욕장과 산등에서 피서를 즐겼다.

이날 부산海雲臺 해수욕장에는 올들어 가장 많은70만 피서인파가 몰렸고 동해안鏡浦臺해수욕장은 수용인원 8만의 2배에 가까운 15만명이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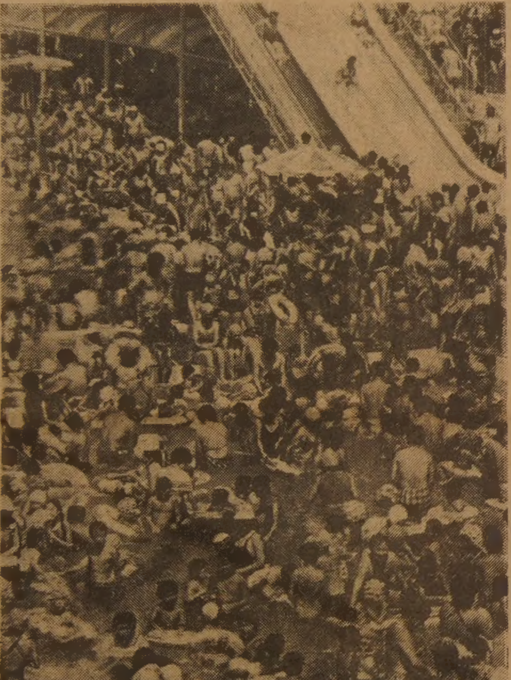
한편 서해안 大川해수욕장에도 이날20만명의 피서객이몰려 해수욕장에서 大川읍까지를 운행하는 택시들은 미터요금2배까지의 바가지요금을 받기도했다.

한편 서울근교의 유원지와 야외풀장등에도 이날30만의 피서인파가 나들이、무더위를 피했다.

이날 서울근교의풀장은 정원의 2~3배가 넘는 손님들로 붐볐는데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은 소지품보관소가 만원이되자 잔디밭에 2백여평의 임시보관소를 급히 가설했다.

또 서울에서 수영을 할수있는 유일한 하천인 광나루유원지도 이날 4만인파로 발디딜틈이 없었고 32명이 익사직전에 수상안전요원들에의해 구출되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13명이 익사했고 유원지 풍기문란사범 6백7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더위와…장사속과… 사람과 물로 범벅이 돼 차라리 목욕탕인 풀장。8월의 첫휴일인 1일 서울시내 각풀장에는 정원의 2~3배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물에 겨우 몸을 적시는 정도였다.【1일낮 타워호텔풀장서】

태풍베시 北上

오늘상오 東海빠져나갈듯

제10호태풍베스는 1일일본남부지방을 강타한후 서서히 위력을 잃어가면서 매시 50km의 속도로 北상을계속、3일새벽 3시께 동해를거쳐 연해주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기상대가 2일밝혔다.

중앙기상대는 중심부근에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하고있는 이태풍이 동해안에상륙하지는 않을것이나 동해안과 영동일대가 태풍의 영향권에들어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公金 7천만원횡령

校長·庶務課長구속

【釜山】부산東萊경찰서는2일학교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D고교교장 金桂洪씨(62·南區大淵洞1739)와 鶴山여중 서무과장 金蓮守씨(47·東萊區福泉洞209)등 2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金교장은 지난64년1월25일부터 현재까지 鶴山여중법인 鶴山학원이사로 있으면서 이사장승인도 없이 80년6월 東萊區漆山洞410、싯가 13억상당의 대지 1천7백여평을 鶴山여중 신축교사 공사를 맡은 덕산건설에 공사비 3억원 명목으로 내줘 재단에 10억원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으며 지난80년3월부터 올해3월까지 조카인 서무과장金씨와짜고 鶴山여중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실험실습비등각종잡부금7천97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聯】

에너지절약책 緩和

國際 야간競技 承認없이 개최

동자부는 그동안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문교부장관의 개별승인을 받도록한 국제야간경기를 주최측 임의로 개최할수있게하는등 에너지절약시책일부를 고쳐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2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밖에도 여관등 숙박업소의경우 자기업소를 표시하는 옥외광고등 1개에한해 허용하고 금은귀금속상회의 진열등의 밝기를 제한하던것을 풀기로 했다.

동자부당국은 그러나 4층이상 아파트의 격층운행제、사무실、일반공장에 대한 백열등 사용금지、병원、터미널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옥외네온사인설치 금지등 이제까지 시행해온 전기사용제한조치는 종전처럼 그대로 시행토록했다.

司法研修院 수료식

12期1백49명 참석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식이 2일 상오10시 俞泰興대법원장、裵命仁법무부장관、金淑鉉국회법사위원장、金澤鉉대한변협회장등 내외귀빈과 수료생 1백49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江南區瑞草洞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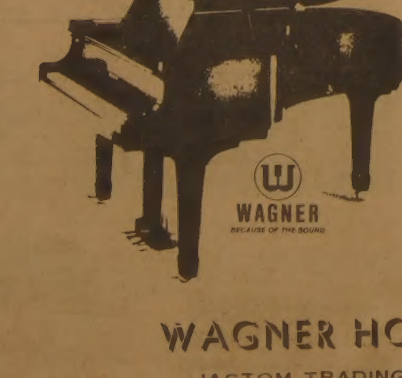
이날 수료식에서 영예의대법원장상은 金龍大씨가、법무부장관상은 文在寅씨가 각각 받았는데 수료생중에는 林淑景씨등 2명의 여자수료생도 끼어있었다.

한편 이날수료한 연수생들은 법관에 45명、검찰에 24명、변호사 3명、군법무관에 77명이 각각 지망했다.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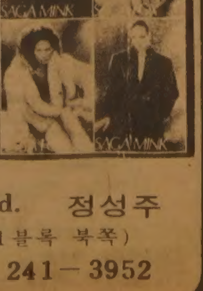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한국일보 詩壇

여름의 눈(下)

諸海萬

여름에 눈을 생각한다。
그리인랜드나 알래스카 쯤에서
原木을 쓰러뜨리는 우람한 소리로 오는
눈。
젊은 베르테르、그리고
衛星山脈、
물끼어린 活字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대 작디 작은 손들이 흔드는
들은、거리는、강은、바다는
오히려 냉철하다。
눈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가뭄이나 무더위를
탓하지도 않는다。
단지、몸으로 부르짖으며
이 뜨거운 한국의 地圖 위에
흩날리는 童話。
잠에서 깨어난 나는
세상이 내다보이는 창 앞에 서서
여름에 눈을 생각한다。

金龍權、통쾌한 逆轉홈런

港都대결…馬山高、仁川 물리쳐 5-2

暴炎씻는 白球의 饗宴 1만여팬들 熱狂

◇決勝홈런 馬山高 4번타자 金龍權(右)이 仁川高와의 대전 3회초 2死1루에서 결승2점 홈런을 때리고 홈인, 나인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있다。

張昌文、3점홈런 北一、信一에 再逆轉勝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제1·2일

여름의 야구대제전 봉황대기 쟁탈 제12회전국고교야구대회는 2일대회 이틀째를맞아 2개의 홈런아치를 그리며 호쾌한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케하고 있다。1만여 관중의환호속에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초반 빅게임에서 馬山高는 3회초 2死후 4번金龍權이 역전결승2점홈런을 날리며 3타수 2안타3타점을 올리는 수훈에 힘입어 전통의仁川高를 5-2로 제압, 2회전에진출했다。德壽商高는 창단초년의 北坪高에 14안타를퍼부어12-2、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大邱高는 1회초 2死후 3번 朴鍾哲이 선제솔로 홈런을 날리고 2회초 안타1·포볼3·도루2·폭투1·패스트볼1·적실1개를 묶어 3점을 얻으며 7회까지 8점을 모아 木浦商高에 8-0、7회 콜드게임승을거두었다。大邱高는 포볼5개에 기록적인 7개의 도루로 찬스를 만들고 적시타로 대량득점에 성공했다。대회개막일 1일北一高의 6번 張昌文은 信一高와의 경기7회초 대회 제1호 결승 3점홈런을 기록했다。

德壽商·大邱 각각 北坪·木浦商에 콜드勝

…馬山高-仁川高…

50년대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명문仁川高의 결의도 金龍權의 홈런 한방에 깨어졌다。

왼손투수 朴元鎭이 투타에서 활약、仁川高는 1회말 1-0의 선제리드를잡으며 기세를 올렸다。

馬山高 첫 3타자를 범타로 처리한후 1회말 선두로 타석에 나온 朴元鎭은 馬山에이스 姜源中의 제3구를통타、중월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정석대로 2번金亨泰가 보내기번트、3번 林聖洙가 우전적시타로 朴을 홈에 불러들였다。

馬山은 2회초 선두4번金龍權이 포볼、5번鄭國憲이좌전안타、6번姜源中이 데드볼로 차례로 출루、無死만루의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범타로 간신히 1점을전져 타이를만들었다。

3회초 2타자를 범타로 잡아 방심했던 仁川 투수 朴元鎭이 馬山 3번 金鍾國에게 좌전안타를 얻어맞았다。4번 金龍權은 朴元鎭의 제6구를 왼쪽 외야석에 라이너로 꽂아 3-1로 역전시켰다。

金龍權은 5회초에도 仁川구원투수 朴商範을 통타、득점타를 날리며 3타수 2안타 3타점1득점으로 馬山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德壽商-北坪高…

德壽商고 1회말 7득점。

먹이웃에 돌아와 앉은 德壽商주장 金允培는 81년 괴로왔던 창단 첫시즌을 회상했다。홈을지키는 포수로서 한회 한회가 악몽같던 해였다。

세번이나 콜드게임패를 당한 치욕으로 선배의 위로가 더욱 부끄러웠던 나날이었다。

창단후 첫 공식전에 나선 北坪高와의 대전서1회말 7안타를 퍼부으며 12-2로시원스런 콜드게임승을 거두었지만 金允培의 마음은 더무거웠다。崔桂鉉감독은 후보선수5명씩을 계속 집어넣으며 안스러운 표정。

北坪은 1회초 1번崔丙國이 포볼로 진루、보내기번트에 이어 3번 姜東錫이 좌월3루타를때려 선제점을 올렸으며 德壽商1투수 범실로 2-0의 리드를 잡았다。北坪 나인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1회말 반격에나선 德壽商은 1번金光賢의 좌월2루타를 신호로 모두 10명의 타자가 7안타·1적실로 7득점、7-2로 역전시켰다。2회말에는 연속5안타로 4점을 추가、5회말에는 연속2안타로 5회콜드게임에 필요한 마지막 1점을 보탰다。

4번 타자 金允培는 1회말 3루타、2회말 좌전안타를 날려 3타수2안타·2타점·2득점을 기록。

北坪 2년생 에이스 崔成鎬는 4회동안 소나기14안타를 맞아 12실점·10자책점·방어율22.5를 기록했다。

◇첫날-1회전

진흥고	100	111	000	—4
휘문고	501	000	00×	—6

▲진흥투수=鄭明基·金鉉哲(1회) 포수=金鉉哲·車永錫(1회) ▲휘문투수=李明燮·李廷燮(6회) 朴完淳(8회) 포수=劉俊赫 ▲안타=진흥11-7휘문

북일고	001	040	321	—11
신일고	100	230	001	—7

▲북일투수=安聖洙·陳正鎬(5회) 포수=金光允 ▲신일투수=金翰中·金廣謙(4회) 포수=金大中·崔元奎(4회) ▲안타=북일15-9신일 ▲홈런=張昌文(7회·3점·북일)

얼굴까지 창백해진 첫出戰 "우리辭典엔 失望이란 없다"

콜드敗 北坪高

『발이 땅에 붙어 버렸어요。3~4m만 쫓아가도 잡을수있는 평범한 외야플라이를 놓쳐 버리다니…』

봉황대회 처녀출전 첫게임서 德壽商高에 12-2 5회 콜드게임패를 당한 北坪高의 朴基淳감독은 경기전에『선수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을 더듬거릴때 예감이 이상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서울운동장을 밟은것만으로도 큰보람을 느낀다는 표정。

北坪高팀이 창단된 것은 지난 12월。강원도 北坪이 읍에서 東海市로 승격되면서 동문들과 주민들의 열망에따라 야구팀을 창설키로했다。

7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TV로 야구를 구경하고 학교특별활동시간에 공을 만져본게 전부였다。

朴감독은 우선 달리기·던지기등의 기초테스트로 19명의 선수를 선발했다。선수들은 대부분 시내 東海쌍용양회공장 직원들을 부모로 가정환경이 괜찮은편이었다。

매일 새벽 학교~江陵간 40㎞를 구보하고 인근 망상해수욕장 백사장서 발에 모래주머니를 단채 단거리와 슬라이딩으로 민첩성을 길렀다。

2개월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는 그런대로 야구선수모습을 갖추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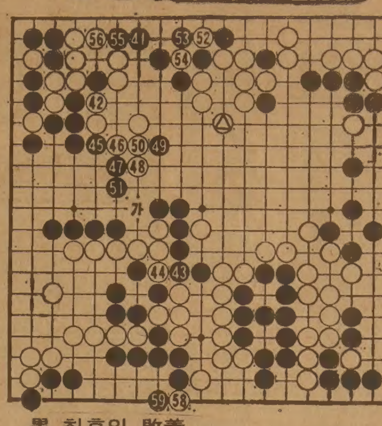
德壽商과의 대전서 2안타를 친 姜東錫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전국대회 첫 출전인 화랑기에서 釜山商에 10-0으로 패하고、봉황대기서 또 콜드게임을 당했지만 실망하지않습니다。내년 서울운동장을 밟을때는 좀더 성숙된 플레이로 성원해준 팬에게 보답하겠읍니다』고 朴감독은 다짐했다。이미 동창회 야구기금 5천만원이 조성됐고 학교서 비닐하우스 연습장과 선수숙소를 마련해주기로약속했으므로北坪高의앞날은밝다。【兪奭根기자】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10譜 141~160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2敗〉



黑、최후의 敗着

도전자는 이바둑도 제3국처럼 초반의 우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2대2동률로 만들줄 알았는데、전보에서 부질없는 싸움을 벌인끝에 또다시 역전의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본보 黑41이 최후의 패착。앞서 스표로「거북이빵따냄」을 당했을때의충격이 너무컸을지 모른다。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전열을다듬어、41은 일단 53에호구쳐살아야했다。비록 덤이문제겠지만 이번에는 이쪽에서 끝까지 물고늘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백과끈기가없어서여간아쉽지않다。

名人은 우선 白42로 두텁게두고 白「가」의 차단수를 노리면서 자리를빌어 좌변黑집을 깨려한다。그래서 黑45이하가 불가피할때 白48까지 좌상白일단 삶의활로를 확인하더니마침내 白52로 黑의 폐부에 일격을가했다。

물론 黑53의 패는 黑한반발이지만 여기까지 名人은 순풍에 돛단격으로 거칠것이 없었다。

白58의패쏨에 黑59는 뼈저린통수。참고도의 黑1로 역습해도 白2를선수하고 4로는 실전보의 59에 들어가 좌하黑을 잡은다음 黑5에는 白6으로 탈출한다。57、60패。【一凡】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11譜 161~200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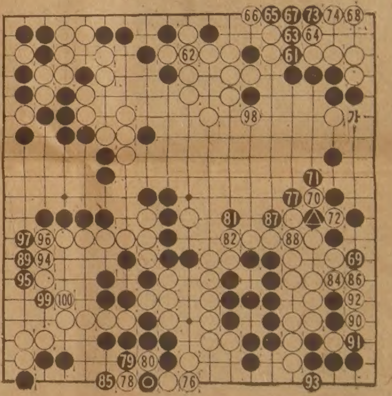
白(名人)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3敗〉

迎日臺소강당에서 제2차해설을 하던 趙南哲8단은、黑이 상변에서 패를내게한 실수를 치명적인 것으로 지적하다가 黑61패쏨에는 숫제 의아스런낯으로 고개를 크게 저었다。『허、이거 안되겠는걸요』

白은 당연히 용수를 하지않고 62로 이어버릴 곳이다。黑63이하로 白집을 양분했자 그저그뿐、불과몇집의 끝내기에 불과한데 白은 상변일대를 고스란히 차지하여 이순간 승리가 확정되고 말았다。

하기야 黑은 패감이 부족하지만 白은「가」에서 이용하는 패감만도 적지않다。도전자가 던질곳을 찾으려는

黑、던질곳을 찾으며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그렇지만 자세히 살피면 형편없이 큰차가 생긴것도 아니므로『黑61의 싯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하고 趙8단은 몹시 아쉬운투로 말했다。

도전자는 黑67까지 내친걸음에 두어놓더니『내가 정신나갔어』하고 불쑥된다。말의 뜻인즉 결코 黑61을 탓하는것이 아니라 이에앞서 상변黑을 살지않은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안타까왔던 모양이다。

그래도 당장 던질때가 아닌듯、黑69이하 손이가는대로 두고또 두었다。우변黑77도 변화를 구해본 수단이지만 승리를 확신한 名人은 필요없는 반발을 피하면서 전실하게 마무리지어간다。

본보 白100에서 하오8시10분。名人은 나머지 15분、도전자는 20분。종국이 가까와지고 있었다。75…▲、83…●【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9

朴婉緖 作
金光培 畫

양달 ⑭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수지는 자기가 발견한 걸 믿지않으려고 고개를 저었다。

수지의 어깨죽지를 휘어잡은 기욱의 손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젖무덤을 더듬었다。마치예정된 절차를 치르듯이 착착할 짓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녀의 관능을 건드리진 못했다。

수지는 자신의 몸이 관능이 죽은 돌처럼 무감각하게 경직되는 느낌에 스스로 놀랐다。치한에게 장난질을 당해도 그렇순 없으리라。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해 어느만큼은 알고 있었다。인재의 미숙하고 기교 없는 애무에도 쉽게 쾌감이 촉발되는 풍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그녀가 고통스러웠던 건 어느 선에서 그걸 억제해야된단데 있었다。아마 그녀를 아끼는 인재의 보다 큰 고통이 없었던들 그 선을 지키긴 어려웠을 것이다。

인재의 고통이 그리워서 가슴속이 젊이젊이 저렸다。아무도、그녀 자신도 미처몰랐던 깊은 오지(奧地)가 자신의 작은 가슴속、기욱이 주무르고있는 풍만한 가슴속에 어둡게 패어있다는 게 그녀를 슬프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그리운건 인재가 가르쳐준 관능의 쾌감이 아니었다。인재의 손길을 느낄때의 그 그지없이 정다운 느낌이었다。그 대단치도않은 게 지금 와서 눈물겹도록 그리울줄이야。

기욱의 손길은 마치 어린애가 점잣기 장난감을 얻어내듯 쉽게 집 한채를 얻어낸 남패스러운 자신감의 여세로 한껏 문란할뿐 부드럽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아아、나는 행복할수 없을지도 몰라。남으로 강을 바라볼수 있는 밝고 예쁜 집에서 살며 고여사가 세팅해준 빼어난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매일 파티에 갈수 있는 생활이 확정돼가는 마당에 이무슨 방정맞은 예감일까?

『재미난데 데려다주지 않을래요?』

『왜 있잖아요。나이트클럽 같은데』

『나이트클럽이면 나이트클럽이지 같은덴 또뭐야?』

『좋은 생각이야。워커힐쪽으로 나갈까?』

『그렇게 멀리요?』

『시간은 충분해。얌전한척 하고싶으면 집에 전화걸어 허락맡지 그래』

『왜 말을 꼭 그렇게 해요?』

『벌써부터 날 길들이려고 하지마。그렇다고 겁낼건 없어。난 근본이 길들여진 인간이거든。남다하는 탈선 같은거 아무리 흉내내 봤댔자 한번도 내가 태어난 울타리 안을 벗어난적이 없는놈이니까』

『나이트클럽 안가도 돼요』

『왜 김 샜어?』

『그렇게 좋은데 말고 젊은애들이 돈 조금 들이고 즐기는데서 기분이나 내보려고 했을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제법 있는 폼이군』

『그것도 안되나요?』

『그 작자하고 같이였을테니까』

『또 그 사람을 들먹이는군요? 하필 오늘 그런 트집을 잡는게 야비하단 생각 안들어요?』

『흥、결혼하고 들먹이면 고상하고?』

『아마 못참을 거예요。절대로…』

『나 역시…。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냐。나의 자존심때문이지。좋은데 알고있는것 같으니 안내해봐』

수지는 기욱과의 타협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갈망때문에 인재와 가끔 가던 곳 클럽으로 앞장섰다。그 곳에서의 자유스러움이 단 하나의 숨구멍처럼 그녀를 유혹했다。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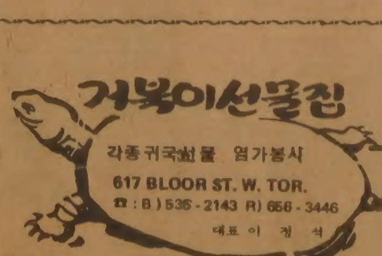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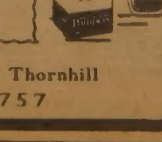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큐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가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土: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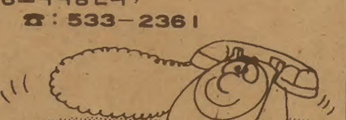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Part Time Helper 구함(남자분)
직접 내방 바람.
1370 Queen St. E.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시고 약간의 중국음식도 하실수 있는분(Full Time, 남·녀관계 없음)
전화 : 284-5124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ie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Store Helper 구합니다.
(Don Mill & Eglinton)지역
전화 : 425-2905

Store Part Time Helper구함
남자분. 스카브로지역
전화 : 267-0847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여자사무원 구함.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며, 타자칠수 있는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함.
전화 : 449-8644 황용현부동산

베비시터

담배 안피우시는 분으로 입주하셔서 두 어린애 보아주시고 가벼운 가정일 돌봐 주실분. 대우 우대함. 목욕탕, 침실 따로 제공하며 매우 분위기 좋은 가정임. 8월20일부터 필요하며 오후 5시 이후에 연락바람.(416)889-7000(Mr./Mrs. Fenwick)타지방에서 문의하실 분은 Collect Call로 하셔도 됩니다.

구직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 드리겠읍니다. Downtown지역.
전화 : 651-5388 (Mrs. 채)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고급 콘도미니움 급매(Jane & Eglinton)
고층 APT로서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음.
(옥외 정구장,Sauna,실내 Pool장,각종 오락시설등)
2 Bed Room. 가격 : $70,000
(B)534-1085, (R)244-9073(오후6시이후)Mr. Kim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Chemical Suply for the Printing Trade.
Small but Profitable I will Train the People.
251-8312 (9:00 a.m~5:00 p.m)

Variety Store(New Market지역)
아스킹 : $95,000+Stock. 리스 : 2년+5년 Option.
주매상 대단히 양호한편임. 전화 : 883-9335 (Mike)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Small Business for Sale+3 Bed Rm.
중심가에 위치한 동전 빨래 세탁소. 1400 Sq.ft.의 넓이며, 살림집이 포함되어 있고, TV. Tower 그리고 커다란 창고도 포함되었으며, 주차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수 있음. Norwood 7 HWY 선상에 있으며 건물은 7년된것이고 Coin Machine은 1년되었음. 낮은 Mortgage(10% Until'87)아스킹 :$70,000그리고 2nd Mortgage도 원한다면 주인이 잡아줄예정임.
전화문의 : 1-705-639-2148 (Jack)
서신연락 : Norwood Coin Wash P.O.Box 122 Norwood Ont. K0L 2V0

Pizza Take Out & Delivery (Downtown Area)
매우 성업중임. 346 Dundas St. E.
Ask for Domenic or Luigi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Mall안에 있는 Convenience Store.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4,000. 앞으로의 발전도 대단히 기대됨.
전화 : 267-8747 (Tom)

미시사가 초입에 있는 꽃및 Gift가게를
위탁하거나, 판매코져 함.
전화 : 624-7597

한·영 사무용 Type Writer 구함.
Ball Type이면 더욱 좋음.
전화 : 499-3686 (오후 6시이후 연락바람)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 + 5년
361 Windermere Ave. (Jane & Bloor)

77년도 폰티액 파리지엔 매매.
4만2천마일.
전화 : 751-3723 김.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주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1,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 $3,300
전화 : 699-4804

▲Two Door(5ft.) Ice Cream 냉장고(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집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방세놓습니다. 노인부부 환영함.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거리
전화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옹)

청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우리동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윌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